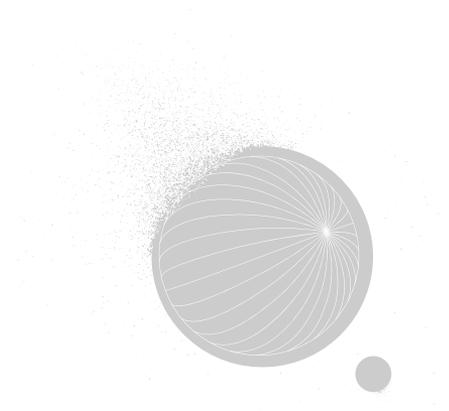


2022년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토론회
묻고, 답하고, 더해가기



04

I. 지도로 보는 생활문화사업

[지도1]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 참여단체 06
[지도2] 교류연계확산사업 참여단체 08

12

II. 2022 생활문화사업 소개

경기권역 생활문화 교류 및 확산 연계 사업 15
성과공유회 24
운영협의체 25
교류회 26
정담회 27
생활문화 인적자원 양성 30
생활문화축제 <우리, 생활문화, 지탱 유니버스> 36

40

III. 생활문화 토론회 대담록

[섹션1] 현장이 말하는 생활문화사업 성과 및 개선점 42
[섹션2] 재단이 말하는 2023년 생활문화사업 계획 63

I

지도로 보는 생활문화 사업

듣고, 답하고, 더해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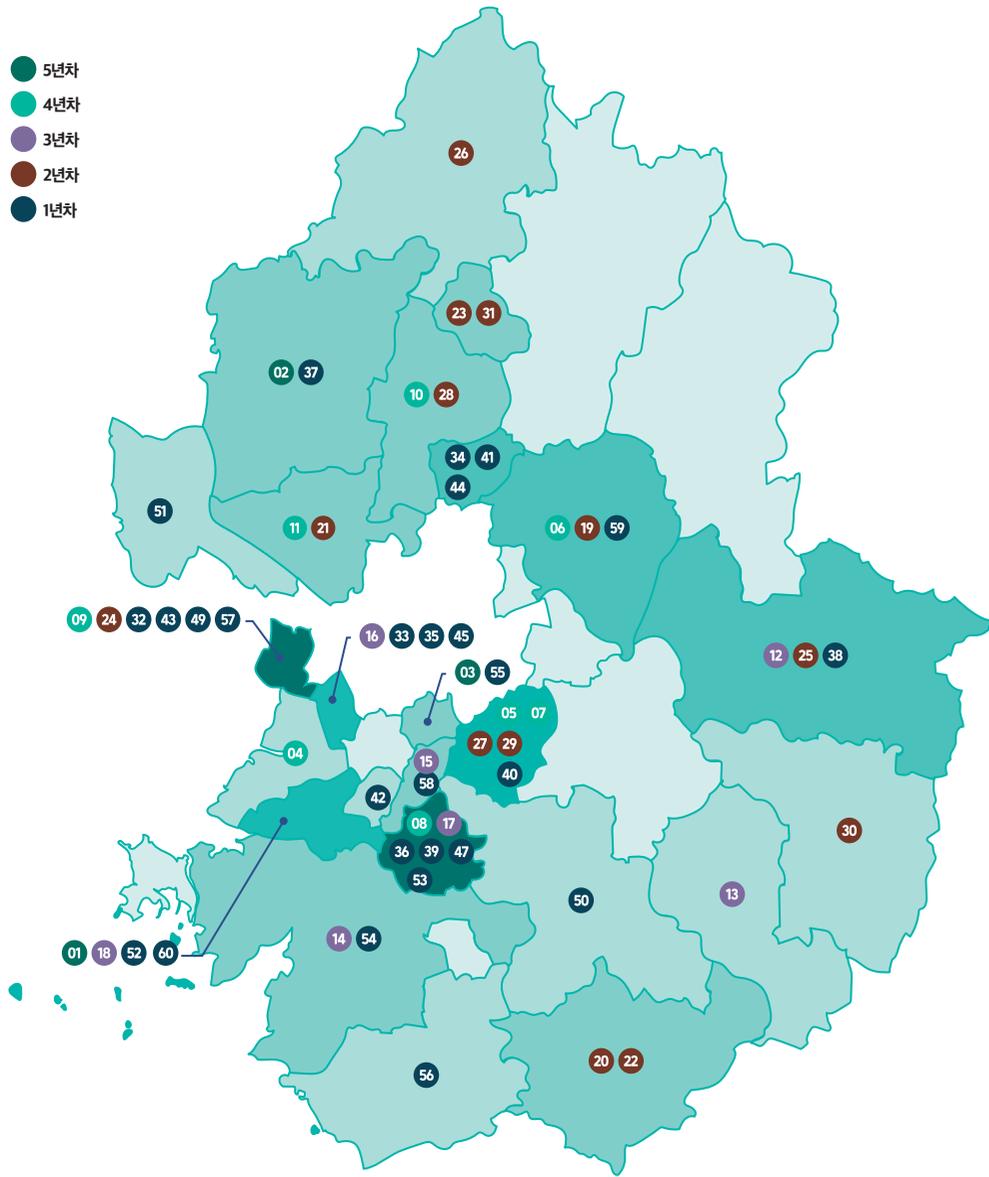


[지도1]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 참여단체

[지도2] 교류연계확산사업 참여단체

[지도 1]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 참여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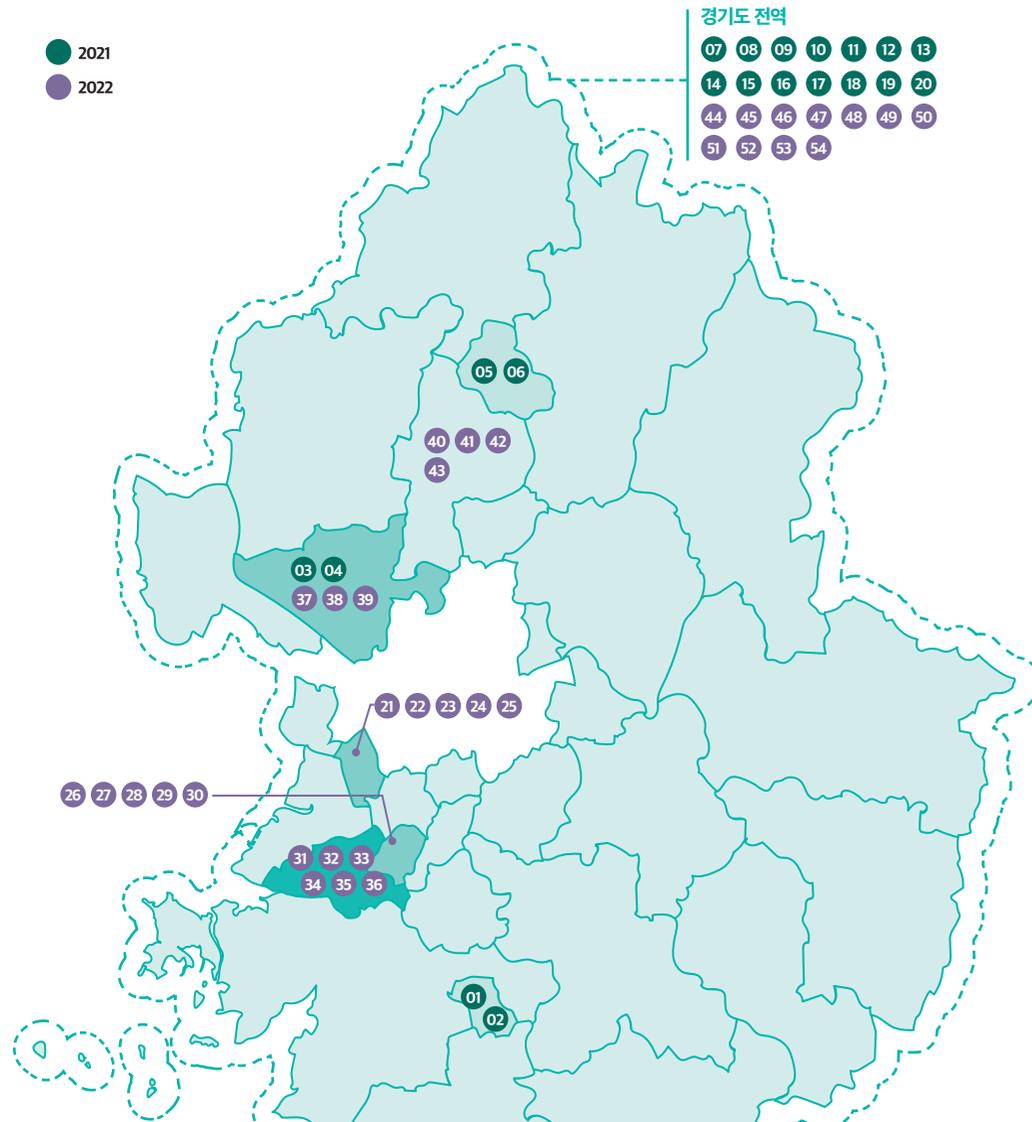


순번	단체명	지역	연차	지원년도					
01	A-TEEN 문화공간 실험, 신나는 문화학교	안산	5년차	'16	'17	'18	'19	'20	
02	파주이야기가게	파주	5년차	'16	'17	'18	'19	'20	
03	연극놀이터 헤마루	과천	5년차		'17	'18	'19	'20	'21
04	시흥문화원	시흥	4년차	'16	'17	'18	'19		
05	서현문화의집	성남	4년차	'16	'17	'18	'19		

순번	단체명	지역	연차	지원년도					
06	진점문화의집	남양주	4년차	'16	'17	'18	'19		
07	우당탕탕 예술 놀이단	성남	4년차		'17		'19	'20	'21
08	협동조합 참좋은수다	수원	4년차			'18	'19	'20	'21
09	공간옴팡	부천	4년차			'18	'19	'20	'21
10	가레비문화살롱(이눔문화예술발전소,이눔유한책임회사)	양주	4년차			'18	'19	'20	'21
11	화전마을학교	고양	4년차			'18	'19	'20	'21
12	산중협동조합,강상징검돌예인회	양평	3년차	'16	'17	'18			
13	이천문화원	이천	3년차	'16	'17	'18			
14	봉담문화의집	화성	3년차	'16		'18	'19		
15	내손의 반딧불	의왕	3년차		'17	'18	'19		
16	분더캄머	광명	3년차			'18	'19	'20	
17	들락날락예술가게	수원	3년차				'19	'20	'21
18	사단법인 율타리넘어	안산	3년차				'19	'20	'21
19	남양주문화원	남양주	2년차	'16	'17				
20	문화예술놀이터 우리	안성	2년차	'16	'17				
21	문화기획협동조합 별책부록	고양	2년차	'16	'17				
22	대안문화학교 달팽이	안성	2년차		'17	'18			
23	동두천문화원	동두천	2년차			'18	'19		
24	모두들,소사청년네트워크(가)	부천	2년차			'18	'19		
25	마네트상사화	양평	2년차				'19	'20	
26	연천문화예술학교	연천	2년차				'19	'20	
27	다모글로벌교육문화협동조합 다모의로엔	성남	2년차				'19	'20	
28	문화예술교육공동체 탐	양주	2년차					'20	'21
29	잼도개비	성남	2년차					'20	'21
30	여주시민그림책방	여주	2년차					'20	'21
31	청년, 문화기획단	동두천	2년차					'20	'21
32	우리마을문화센터	부천	1년차	'16					
33	세상의 모든 나무(세모나)	광명	1년차	'16					
34	의정부문화원	의정부	1년차	'16					
35	광명문화의집	광명	1년차	'16					
36	수원문화원	수원	1년차	'16					
37	파주시생활문화협동조합	파주	1년차		'17				
38	옹배마을사람들	양평	1년차		'17				
39	지구별살롱	수원	1년차		'17				
40	프로젝트 파니	성남	1년차				'19		
41	민들레흙씨	의정부	1년차				'19		
42	문화소통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군포	1년차				'19		
43	부천문화재단오정생활문화센터	부천	1년차				'19		
44	풍물매 한비	의정부	1년차				'19		
45	광명문화재단 하안문화의집	광명	1년차				'19		
46	무빈아트	안성	1년차				'19		
47	칠보 꿈꾸는 도서관	수원	1년차				'19		
48	보충대리공간 스톤엔워터	안양	1년차				'19		
49	소세울소통미디어 협력단	부천	1년차				'19		
50	길드다	용인	1년차				'19		
51	블루밍협동조합	김포	1년차					'20	
52	치유공간 이웃	안산	1년차					'20	
53	꿈만세	수원	1년차					'20	
54	문화발전소 열터	화성	1년차					'20	
55	과천러닝크루	과천	1년차					'20	
56	주식회사 더이음	평택	1년차						'21
57	예술과 문화 그리고 예절	부천	1년차						'21
58	이눔유한책임회사	의왕	1년차						'21
59	소소	남양주	1년차						'21
60	아트벨라르페	안산	1년차						'21
연도별 참여단체 수 총 123				16	17	18	32	23	17

[지도 2]

교류연계확산사업 참여단체



순번	지역	기관	단체명	지원년도
1	오산시	신청	문화전파사	'21
2		연계	오산문화재단	'21
3	고양시	신청	고양문화재단	'21
4		연계	문화기획동조합 별책부록	'21
5	동두천시	신청	변방의 목소리	'21
6		연계	동두천생활문화센터	'21

순번	지역	기관	단체명	지원년도	
7	경기도	신청	경기도문화원연합회	'21	
8		연계	주주비빔	'21	
9		연계	세런디피티 78	'21	
10		연계	백사면 자릿골 주민회	'21	
11		연계	호랑이 배꼽	'21	
12		연계	공정여행마을로사회적협동조합	'21	
13	경기도	신청	한국문화의집협회	'21	
14		연계	서현문화의집	'21	
15		연계	남양주시문화의집	'21	
16		연계	역곡문화의집	'21	
17		연계	봉담문화의집	'21	
18		연계	향남문화의집	'21	
19		연계	광명문화의집	'21	
20		연계	하안문화의집	'21	
21		광명시	신청	광명문화재단	'22
22			연계	초아픽	'22
23	연계		광명잇발보급소	'22	
24	연계		다운도에	'22	
25	연계		협동조합 담다	'22	
26	군포시	신청	군포문화재단	'22	
27		연계	그치!!	'22	
28		연계	실로 엮는 이야기	'22	
29		연계	수목금	'22	
30		연계	행복한 인두화 그림 동호회	'22	
31	안산시	신청	문화플랫폼 열무	'22	
32		연계	신나는 문화학교 심표	'22	
33		연계	아트벨라르메	'22	
34		연계	청소년열정공간 99도씨	'22	
35		연계	비건숲	'22	
36		연계	스스스튜디오	'22	
37	고양시	신청	문화기획동조합 별책부록	'22	
38		연계	오후서재	'22	
39		연계	화전마을학교	'22	
40	양주시	신청	777생활문화센터	'22	
41		연계	장흥오라이	'22	
42		연계	청년망고	'22	
43		연계	라이브렐리	'22	
44	경기도	신청	경기도문화원연합회	'22	
45		연계	달강세월협동조합	'22	
46		연계	(취지역)다온레이블(열두틀)	'22	
47		연계	대원철공소	'22	
48		연계	공정여행마을로사회적협동조합	'22	
49	경기도	연계	가치가게	'22	
50		신청	한국문화의집협회 경기지회	'22	
51		연계	성남서현문화의집	'22	
52		연계	남양주시문화의집	'22	
53		연계	역곡문화의집	'22	
54		연계	하안문화의집	'22	

[별첨]

숫자로 보는 경기 생활문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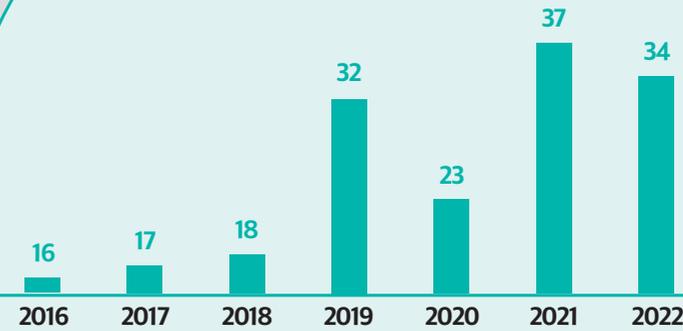
◇ 지역참여율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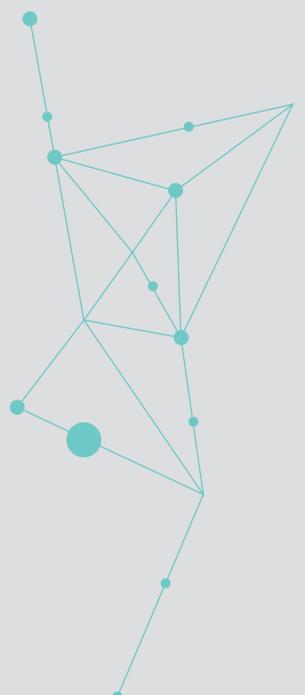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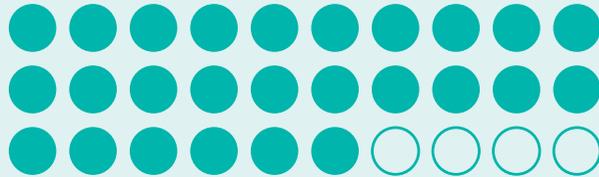
◇ 99개 플랫폼 구축



◇ 연도별 활동 플랫폼



◇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개 지역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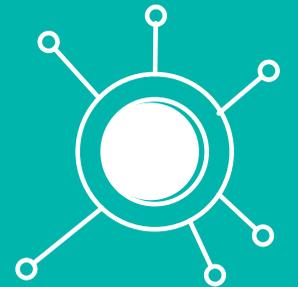
II

2022

생활문화

사업 소개

문고, 답하고, 더해가기



경기권역 생활문화 교류 및 확산 연계 사업

성과공유회

운영협의체

교류회

정담회

경기도 생활문화 인적자원 양성

2022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축제 <우리, 생활문화, 지탱 유니버스>

물고, 답하고, 더해가기



[경기권역 생활문화 교류 및 확산 연계 사업] 사업소개

① 광명문화재단

사업명 광명 생활문화 거점 활성화 사업 <근거한 공간>
사업기간 2022년 9월 1일 ~ 2022년 12월 15일
연계기관 초아픽, 광명텃밭보급소, 다운도예, 협동조합 담다



○ 사업내용

세부 사업명	생활문화 공간포럼 <뜻밖의 만남①>	생활문화 공간 교류 워크숍 <뜻밖의 만남②>	공간별 거점 프로젝트 <뜻밖의 기획>	공간 교류 프로젝트 <뜻밖의 교류>
주체	연계단체 4곳(초아픽, 광명텃밭보급소, 다운도예, 협동조합 담다) + 광명문화재단			초아픽 + 광명텃밭보급소 + 다운도예 + 협동조합 담다 + 광명문화재단
일정	12.15.	매주 목요일 컨설팅(8.16. / 10.6.) 기획회의(9.1 / 9.8. / 9.14. / 9.22. / 9.30. / 10.6. / 10.24. / 11.30.)	10월 ~ 11월 초아픽(10.9. ~ 11.6. 매주 일요일) 광명텃밭보급소(10.15.) 다운도예(10.15. ~ 10.29. / 11.19 ~ 20.) 협동조합 담다(10.21. / 10.24. / 11.2. / 11.4.)	11.20.
대상	생활문화 공간 이야기를 듣고 싶은 시민	연계단체 공간 기획자	광명시 시민	광명시 시민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한 공간> 과정 공유 • 지속 가능한 생활 문화 공간-거점 공간으로서의 발전 방향 모색 • 광명 내 생활문화 공간들의 관계망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 공간에서의 뜻밖의 기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 마련 • 권역별 생활문화 거점이 되기 위한 프로젝트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별 특성과 지역 현황을 연결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진행 • 안정적 공간 운영과 생활문화 프로그램 기획을 통한 권역별 시민들의 생활문화 경험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기획자들의 예술 활동 영역 확장과 지역(공간-공간) 문화 예술 공동체 형성 • 광명 내 생활문화 공간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생활문화 경험을 할 수 있는 생활문화 기반 마련

② 군포문화재단

사업명 우리동네 생활문화 디자이너
사업기간 2022년 8월 ~ 2022년 12월
연계기관 생활문화디자이너 3명 + 생활문화공동체 4개 단체



○ 사업내용

구분	일시 및 장소	세부내용
1	[모집] 생활문화디자이너 모집 8.29. ~ 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생활문화 정책 연구와 생활문화공동체 그룹의 네트워크 운영을 담당할 디자이너 공개모집 서류심사: 9.15. / 인터뷰심사: 9.16.
2	[모집] 생활문화공동체 모집 8.29. ~ 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문화공동체 간 네트워크 및 생활문화 실행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생활문화를 매개로 지역의 생활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생활문화공동체 공개모집 서류심사: 9.15. / 인터뷰심사: 9.22.
3	오리엔테이션 9.28. 군포시생활문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강의(임승관 대표) 사업소개 및 참여자 인사 참여자 인터뷰를 통한 네트워킹 디자이너그룹과 공동체 매칭 완료
4	1차 교류 워크숍 10.21. 군포시생활문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생활문화디자이너, 공동체) 간 교류시간 공동체별 진행상황 및 기획방향 공유
5	그룹별 프로젝트 실행 ① 11.12. / 11.18. / 11.19. / 11.21. / 11.22. / 1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명: 그치!! 실로 엮는 이야기와 협업으로 실공예와 회화를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형식의 그림책 작품 만들기
6	그룹별 프로젝트 실행 ② 11.16. / 11.18. / 11.22. / 11.24. / 11.25. / 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명: 실로 엮는 이야기 그치!!와 협업으로 우리 동네이웃을 주제의 그림책 내용을 실공예로 작품 만들기
7	그룹별 프로젝트 실행 ③ 11.15. / 11.17. / 11.22. / 11.24. / 1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명: 수목금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생활용품을 직접 디자인하고 나무를 깎아 만드는 우드카빙
8	그룹별 프로젝트 실행 ④ 11.12. / 11.13. / 11.19. / 11.20. / 11.26. / 1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명: 행복한 인도화 그림 동호회 인도화 목공예를 통해 상호 친근한 인간관계 형성과 삶 공유함
9	2차 교류 워크숍 11.26. / 군포시생활문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스브레이킹, 공동체별 체험 프로그램, 소감 발표
10	성과공유회 12.1. / 군포시생활문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운드테이블, 성과발표 및 전시회, 참여자 간 의견 나눔
11	아카이빙 영상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소개 및 아카이빙 영상 제작

③ 양주777 생활문화센터

사업명 양주시 생활문화 플랫폼 구축
사업기간 2022년 8월 20일 ~ 2022년 12월 31일
연계기관 장흥오라이, 라이브라리, 청년망고



○ 사업내용

구분	일시 및 장소	세부내용
1	[생활문화교류 플랫폼 구축] 네트워크 파티 8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주시 교류 플랫폼 구축
2	[생활문화교류 플랫폼 구축] 네트워크 파티 10월 중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폼앗이_플랫폼을 통한 자원교류
3	[생활문화교류 플랫폼 구축] 네트워크 파티 12월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랫폼 홍보 및 활성화
4	[장흥유원지 생활문화 나들이] 축제 준비 8월 2주, 4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제 기획단 출범, 참여 동아리 및 기관 섭외 행사 계획 및 행사 취지 설명
5	[장흥유원지 생활문화 나들이] 축제 준비 9월 2주, 3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명 선정 및 동아리별 행사 위치 결정 행사 참여자 네트워킹 데이 개최
6	[장흥유원지 생활문화 나들이] 축제 준비 9월 4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개 동아리 양주시 장흥면 아름다운 화장실 앞 행사개최 연계단체 등 부스참여
7	[장흥유원지 생활문화 나들이] 축제 개최 10.1. / 장흥유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리 참여 10개, 공연팀 4개 참여 생활문화 관련 마을주민 기획 및 양주시 협력을 통해 개최
8	[나를 만드는 시간-백메이커] 프로그램 기획 및 인원 모집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기획, 홍보 및 인원 모집
	[나를 만드는 시간-백메이커] 사전 워크숍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명회 개최(예술치료 프로그램+기획 설명)
9	[나를 만드는 시간-백메이커] 프로그램 진행 9.22. ~ 11.10. 매주 목요일 / 777생활문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를 만드는 시간 8주차 운영 진단, 탐구, 정의, 설계 4단계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직접 찾고 만들기 라이브라리의 예술치유프로그램을 통해 '나'에 대해 생각하고 찾아가는 과정
10	[나를 만드는 시간-백메이커]강의 시연 12월	

④ 문화기획 협동조합 별책부록

사업명 역끼(역어서 함께 들어 올리기 또는 내려놓기)
사업기간 2022년 8월 ~ 2022년 12월
연계기관 오후서재, 화전마을학교



○ 사업내용

	구분	일시 및 장소	세부내용
기획 회의	네트워크 모임	9.5. / 고양시립 일산도서관	• 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 논의, 효율적 정산을 위한 방법
	네트워크 모임	10.20. / 상상공간 별짓	• 사업에 대한 공유, 기획시 고려해야 할 점
	네트워크 모임	11.24. / 상상공간 별짓	• 중간 점검회의, 기획자 네트워크 모임 준비
	네트워크 모임	11.27. / 파브레공방	• 수작_만들다 기록화 사업에 관한 회의
문화 기획 협동 조합 별책 부록	워크숍	8.20. / 상상공간 별짓	• 생활문화와 기록하기
	프로그램 진행	8.20. / 파베르 공방	• 호두나무 접시 만들기와 기록하기 워크숍 •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기록 워크숍 진행 • 우드카빙에 대한 이해, 호두나무 접시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9.24. / 파베르 공방	• 호두나무 접시 만들기와 기록하기
	프로그램 진행	10.15. / 파베르 공방	• 마음까지 움직이는 트롤리 만들기와 기록하기
	프로그램 진행	10.30. / 파베르 공방	• 막걸리잔 만들기와 기록하기
'수작 부리다 - 만드는 방법'	프로그램 진행	11.19. / 상상공간 별짓	• 앞치마 만들기와 기록하기
	네트워크 모임	9.30. / 오후서재	• 고양시 기획자 네트워크 • 오후서재 공간 이야기와 기획자들의 이야기
	네트워크 모임	12.12. / 능곡쌀롱	• 고양시 기획자 네트워크 • 고양시 생활문화 방향성 강의
	공유회	12.15. / 상상공간 별짓	• 기록물 자료 확인 후 성과 공유의 시간

	구분	일시 및 장소	세부내용
화전 마을 학교 '지역 춤기'	비건한로드(1회)	9.14. / 화전마을학교 별별공간	• 채식은 나의 운명
	비건한로드(2회)	9.24. / 화전동 텃밭	• 텃밭에서 만나는 건강한 제철재료
	비건한로드(3회)	10.12. / 화전마을학교 별별공간	• 오감만족, 채식만족
	비건한로드(4회)	10.26. / 별별+덕양중, 텃밭+향동천	• 채식 산책
	비건한로드(5회)	11.9. / 화전마을학교 별별공간	• 채식력을 키우다
	비건한로드(6회)	11.19. / 화전동 망월산+별별	• 비운자를 위한 만찬
	공존의밥상(1회)	9.3. / 화전마을학교 별별공간	• 앞뒤가 똑같은 우영우 (자폐, 발달장애, ADHD와 친구하기)
	공존의밥상(2회)	9.30. / 덕양중 도서실	• 춤추는 몸짓 (잃어버린 몸의 감각을 깨우자)
	공존의밥상(3회)	10.14. / 화전마을학교 별별공간	• 권모술수 권영우 (소수자를 향한 외침)
	공존의밥상(4회)	11.5. / 화전마을학교 별별공간	• 알파세대와 친추맺기 (혼자라서 좋은 알파세대와 소통하기)
오후 서재 '마을 산책, 기록자'	공존의밥상(5회)	11.20. / 화전마을학교 별별공간	• 모두의 밥상 (모든 기록 전시하고 나누는 네트워크 파티)
	마무리모임	11.29. / 화전마을학교 별별공간	• 지역춤기 마무리를 위한 평가 및 기록물 회의
	9월 걷는 산책	9.18. / 오후서재(성저마을 일대)	• 동네토박이와 함께하는 산책
	9월 걷는 산책	9.24. / 오후서재(성저마을 일대)	•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하는 산책
	9월 걷는 산책	9.29. / 오후서재	• 9월 사진공유회
	10월 뛰는 산책	10.8. / 오후서재(성저마을)	• 성저공원을 달리며 산책
	10월 뛰는 산책	10.13. / 오후서재(성저마을)	• 성저마을 할로윈 플로깅 릴리지런
	10월 뛰는 산책	10.20. / 오후서재	• 10월 사진공유회
	11월 말하는 산책	10.27. / 오후서재(라라그레이스)	• 동네 공방 그린 테라피 체험
	11월 말하는 산책	11.3. / 오후서재(토커바웃)	• 동네 카페 토커바웃 커피시음회
네트워크 파티	11월 말하는 산책	11.10. / 오후서재	• 11월 사진공유회
	네트워크 파티	11.17. / 오후서재	• 9월~11월 모든 참가자 대상 네트워크 및 마무리 파티 • 지난 모든 산책을 하며 느낀점 공유 및 앞으로의 마을 산책에 대한 고민

⑤ 문화플랫폼 업무

사업명 초대: 살롱드안산

사업기간 2022년 8월 1일 ~ 2022년 12월 15일

연계기관 비건숲, 스스스튜디오, 신나는문화학교, 아트벨라르떼, 청소년열정공간99도씨

○ 사업내용

구분	일시 및 장소	세부내용	
1	호스트 전체 기획 회의	8.23. / 문화플랫폼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 호스트 살롱 내용 공유 컨설팅을 통한 사업 의미 공유
2	단체별 프로그램 진행 (그림책빵 - 그림책과 함께하는 채식베이킹)	9.21. / 비건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책 읽기, 채식 베이킹, 베이킹하며 그림책과 할머니 이야기하기
3	단체별 프로그램 진행 (경춘싱어즈 - 나도 뮤지컬 배우다)	9.21. / 아트벨라르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을 주제로 이야기 하기, 우리를 위한 간식 먹기, 환경 주제로 가사 만들어 노래하기
4	단체별 프로그램 진행 (필사의 휴식)	9.23. / 문화플랫폼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임 진행 원칙, 방법 공유 음료 마시며 대화 나누기 말하지않고 자기 노래 들으며 필사
5	단체별 프로그램 진행 (수수밥살롱)	9.23. / 청소년열정공간 99도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에 담긴 이야기 소개, 각자 기억에 남는 음식 이야기
6	단체별 프로그램 진행 (상실타레)	9.29. / 문화플랫폼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로를 느긋하게 만드는 음료 마시기 실타레를 엮으면서 상실 나누기
7	단체별 프로그램 진행 (시방 -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방)	10.5. / 스스스튜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작, 끝, 일 등과 관련된 키워드로 이야기 시작 문장 바느질하기
8	단체별 프로그램 진행 (시방 -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방)	10.12. / 스스스튜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작, 끝, 일 등과 관련된 키워드로 이야기 시작 문장 바느질하기

구분	일시 및 장소	세부내용	
9	단체별 프로그램 진행 (그림책빵 - 그림책과 함께하는 채식베이킹)	10.12. / 비건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책 읽기, 채식 베이킹, 베이킹하며 그림책과 할머니 이야기하기
10	단체별 프로그램 진행 (경춘싱어즈 - 나도 뮤지컬 배우다)	10.19. / 아트벨라르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을 맞는 우리들의 경춘 할로윈
11	단체별 프로그램 진행 (필사의 휴식)	10.21. / 문화플랫폼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임 진행 원칙,방법 공유 음료 마시며 대화 나누기 말하지않고 자기 노래 들으며 필사 할로윈 필사
12	단체별 프로그램 진행 (상실타레)	10.27. / 문화플랫폼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로를 느긋하게 만드는 음료 마시기 실타레를 엮으면서 상실 나누기
13	호스트 전체 기획 회의	11.2. / 문화플랫폼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 호스트(초대) 이야기 및 나눔 공유회 관련 논의
14	단체별 프로그램 진행 (인클루드 기억展)	11.12. / 청소년열정공간99도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억, 역사, 인권에 관한 청년 굿즈 전시 기억 이야기 나눔
15	호스트 전체 기획 회의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 축제 기획 회의)	11.22. / 마을상점생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축제 준비 회의
16	공유회 (살롱드안산 공유 나눔의 날)	12.9. / 마을상점생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롱드안산 초대 나눔의 날 각 호스트(초대) 모임 진행 및 교류, 공연 등
17	호스트 전체 기획 회의 (전체 소감 나눔)	12.9. / 마을상점생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 안산 지역 생활문화 내용 공유 및 각 호스트 (초대) 모임 소감 나눔

⑥ 한국 문화의집협회 경기지회

- 사업명** 2022 경기권역 문화의집 생활문화 플랫폼 운영사업
- 사업기간** 2022년 8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연계기관** 성남서현문화의집, 역곡문화의집, 남양주시문화의집, 하안문화의집

○ 사업내용

구분	일시 및 장소	세부내용
1	사업 자문 회의 (사업협력기획)	8.9. / 온라인화상회의 • 사업 실행 방향 및 문화의집 역할 논의
2	간담회 (문화의집 운영자 네트워크)	8.23. / 온라인화상회의 • 사업 진행 안내 및 방향 논의 및 강의 • 강의 진행
3	준비워크숍 (생활문화플랫폼 시범사업)	9.5. / 강원도 춘천 • 춘천 생활문화 플랫폼 사례 강의 및 현장탐방 • 문화의집 별 계획서 작성 및 방향 논의
4	시범사업 운영 (성남서현문화의집)	9.21./9.26./9.26./9.27./10.12./10.13./10.14./10.21./10.24./10.28./11.15. • <우리 성남에는 어떠한 민간 생활문화공간들이 있을까?> • 성남시 내 운영중인 민간 생활문화공간 발굴하여 네트워킹 및 교류 진행
5	시범사업 운영 (역곡문화의집)	10.14./10.21./10.28./11.8./11.9./11.11./10.15./10.18./11.22. • <라면 수다 포차> • 라면을 매개로 주민들과 함께 생활문화활동의 공론의 장 진행
6	시범사업 운영 (남양주시문화의집)	10.5./10.12./10.22./10.29./11.12./11.18./12.10. • <은밀한 출판사 - 은퇴 후 마을에서 더 친밀한 작당을 위해 모임> • 은퇴를 앞둔 50 ~ 60대 남성들과 함께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 진행
7	시범사업 운영 (하안문화의집)	10.12 ~ 10.17./10.24 ~ 11.6./10.26./10.26 ~ 11.4./11.1 ~ 11.11./11.7 ~ 11.11./11.12./11.30. • <생기발랄 문화의집과 함께하는 매력shop매력show 페스타> • 광명 내 다양한 생활문화 공간들이 모여 우리 공간의 매력을 자랑
8	현장방문 (역곡문화의집)	11.8. / 역곡문화의집 • 현장방문 및 협력기획 진행
9	현장방문 (하안문화의집)	11.12. / 하안문화의집 • 현장방문 및 협력기획 진행
10	현장방문 (남양주시문화의집)	11.12. / 남양주시문화의집 • 현장방문 및 협력기획 진행
11	현장방문 (성남서현문화의집)	11.15. / 성남서현문화의집 • 현장방문 및 협력기획 진행

구분	일시 및 장소	세부내용
12	운영자 역량 강화 교육	11.24. / 온라인화상회의 • <동네에서 노는 재미, 개구장위들의 이야기-인재명 성북문화재단> • 문화 커뮤니티로서 개구장위들의 역할과 운영 방향 소개 • 문화로 동네를 만나고 관계를 만드는 개구장위들의 다양한 활동 공유
13	운영자 역량 강화 교육	11.29. / 온라인화상회의 • <생활문화공간과 시민력 - 지금종(前지역문화진흥원 이사장)> • 동네 생활문화 공간에서 고민해봐야 할 시민 참여의 형태와 방향 • 문화의집이 시민력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와 의미
14	운영자 역량 강화 교육	12.8. / 온라인화상회의 • <수작과 함께하는 서로 걱정 모임 - 정다운(여전히 마크라메 대표)> • 올해 문화의집을 되돌아보며, 향후 문화의집과 생활문화 플랫폼을 연결하기 위한 고민에 대한 논의
15	결과공유회	12.14. ~ 12.15. / 광명 • 광명 지역 문화공간 탐방, 문화의집 별 시범사업 결과 공유

⑦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 사업명** 지역특성화프로젝트 동네한바퀴 주간(week)
- 사업기간** 2022년 7월 ~ 2022년 12월
- 연계기관** 달강세월협동조합(양평), 열두톨(고양), 수원, 김영환(용인), 공정여행 마을로(용인), 가치가게+방영경작가(수원,군포)



○ 사업내용

구분	일시 및 장소	세부내용
1	[양평] 달인 찾아 마을 여행	10.1. / 세월리일대 • 세월리 마을을 산책하며 마을에 거주하는 달인들과 체험 프로그램 진행
2	[고양] 알로-花, 고양 가을꽃여행	10.8. / 열두톨 • 열두톨과 신도시에 숨겨졌던 매력을 찾아 떠나는 시티팸투어
3	[수원] 마을디자이너 플라마켓	10.15. / 경기상상캠퍼스 • 셀러: 10명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발굴한 우리동네크리에이터 중) • 경기상상캠퍼스 디자인축제와 함께 진행
4	[용인] 용인 마지막 대장간투어, 대장간에서 뭐하지?	10.22. / 대원철공소 • 55년간 전통방식으로 칼을 만들어 온 대 장장이와 함께 우리 가족 칼 만들기
5	[수원] 걷기 좋은 날	10.29. / 용담저수지 • 마을투어 프로그램 및 플라마켓(뜰마켓)에 우리동네크리에이터들과 연계
6	[수원x군포] 비닐업사이클링 워크숍	12.5. / 가치가게 • 페비닐을 활용하여 작품 또는 소품만들기

성과공유회

날짜 2022년 12월 21일
장소 지역별 컨설턴트 방문 후 온라인 ZOOM을 통하여 진행

○ 경기권역 생활문화 교류 및 확산 연계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의 22년 활동 공유

15:00 ~ 15:20	성과공유회 행사 안내 및 참석자 인사
15:20 ~ 15:35	광명문화재단 광명 생활문화 거점 활성화 사업 <근거한 공간> 성과공유
15:35 ~ 15:50	군포문화재단 우리동네 생활문화 디자이너 성과공유
15:50 ~ 16:05	양주777 생활문화센터 양주시 생활문화교류 플랫폼 구축 성과공유
16:05 ~ 16:20	문화기획협동조합 별책부록 역끼(부제:엮어서 함께 들어올리기 또는 내려놓기) 성과공유
16:20 ~ 16:35	문화플랫폼 열무 초대 : 살롱 드 안산 성과공유
16:35 ~ 16:50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지역특성화프로젝트 동네한바퀴 주간(week) 성과공유
16:50 ~ 17:05	한국문화의집협회 경기지회 2022 경기권역 문화의집 생활문화 플랫폼 운영사업 성과공유
17:05 ~ 17:30	의견 취합 및 성과공유회 마무리

운영협의체

날짜 2022년 7월 20일, 8월 23일, 9월 20일, 10월 18일, 11월 22일 / 총 5회
장소 경기상상캠퍼스

○ 경기도 생활문화 주제별 이슈 도출을 통한 담론 형성 및 향후 사업 제안

1회차	· 임명장 수여 · 생활문화 주제 확정
2회차	· 생활문화 흐름 · 지역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
3회차	· 자발적 주체가 되는 현장의 생활문화 · 예술과 생활문화
4회차	· 생활문화 거버넌스, 지원방향, 시민 파트너십
5회차	· 생활문화 공간 · 생활문화 공간의 장소성 및 공공성



교류회

날짜 2022년 8월 3일
장소 경기상상캠퍼스 교육1964 1층 교육랩2

○ 경기권역 생활문화 교류 및 확산 연계 사업 참여 기관·단체의 상호학습 및 네트워크 구축

14:30 ~ 14:40	· 참석자 소개 및 인사
14:40 ~ 15:15	· 연계 기관 및 단체별 사업 발표
15:15 ~ 15:30	· 2022 경기생활문화센터 사업 소개
15:30 ~ 16:30	· 1:1 컨설팅



정담회

날짜 2022년 10월 25일
장소 경기상상캠퍼스 교육1964 1층 컨퍼런스홀

○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 생활문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의견 토론회를 통한 경기도형 생활문화 정책 및 의제 도출

13:00 ~ 13:30	· 행사 소개 및 참가자 인사 · 2022 경기권역 생활문화 교류 및 확산 연계사업 소개						
13:30 ~ 15:00	· 그룹토론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1그룹]</td> <td>기초문화재단</td> </tr> <tr> <td>[2그룹]</td> <td>문화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td> </tr> <tr> <td>[3그룹]</td> <td>생활문화 민간단체</td> </tr> </table>	[1그룹]	기초문화재단	[2그룹]	문화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3그룹]	생활문화 민간단체
[1그룹]	기초문화재단						
[2그룹]	문화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3그룹]	생활문화 민간단체						
15:30 ~ 17:00	· 2022 경기생활문화센터 사업 소개						

○ 주요의견

1그룹 - 기초문화재단

- ↳ 생활문화 이해 및 설득을 위한 자료집 또는 가이드북 제작·배포 필요
- ↳ 단순 일회성 사업에서 생활문화 사업으로 전환을 위한 생활문화 전문가 교육 추진
- ↳ 생활문화 공간에 대한 필요성과 활용성 논의 후 다양한 지원 추진
- ↳ 인력과 예산, 잦은 인사이동 등을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 ↳ 지역기획자, 생활문화 단체들의 사례 공유를 위한 만남의 장 필요

2그룹 - 문화원·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 ↳ 기초재단과 현장의 소통 과정에 대한 광역재단의 조율 필요
- ↳ 민간기관의 생활문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문 컨설팅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필요
- ↳ 기초재단 및 광역재단에 생활문화 DB 구축 미흡

- ▣ 생활문화 사업에 대한 지역적 의미와 맥락 이해 필요
- ▣ 생활문화 사업 구조에 맞는 지출 구조에 대한 고민
- ▣ 정기적 의견 나눔 토론회 추진 필요

3그룹 - 생활문화 민간단체

- ▣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은 과정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업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행위가 존중받는 사업임
- ▣ 사업을 지원받지 않아도 발굴된 생활문화디자이너를 통해 각자의 삶을 디자인하면서 역할을 만들어 가고 있음
- ▣ 지역 내 생활문화 플랫폼의 독창성, 고유성을 살려줄 수 있는 컨설턴트 역할 중요
- ▣ 기초재단이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에 대한 이해와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 필요
- ▣ 생활문화 플랫폼만의 새로운 평가시스템 개발
- ▣ 기초문화재단이 없는 경우 경기도 내 생활문화 플랫폼 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업 추진 필요



생활문화 인적자원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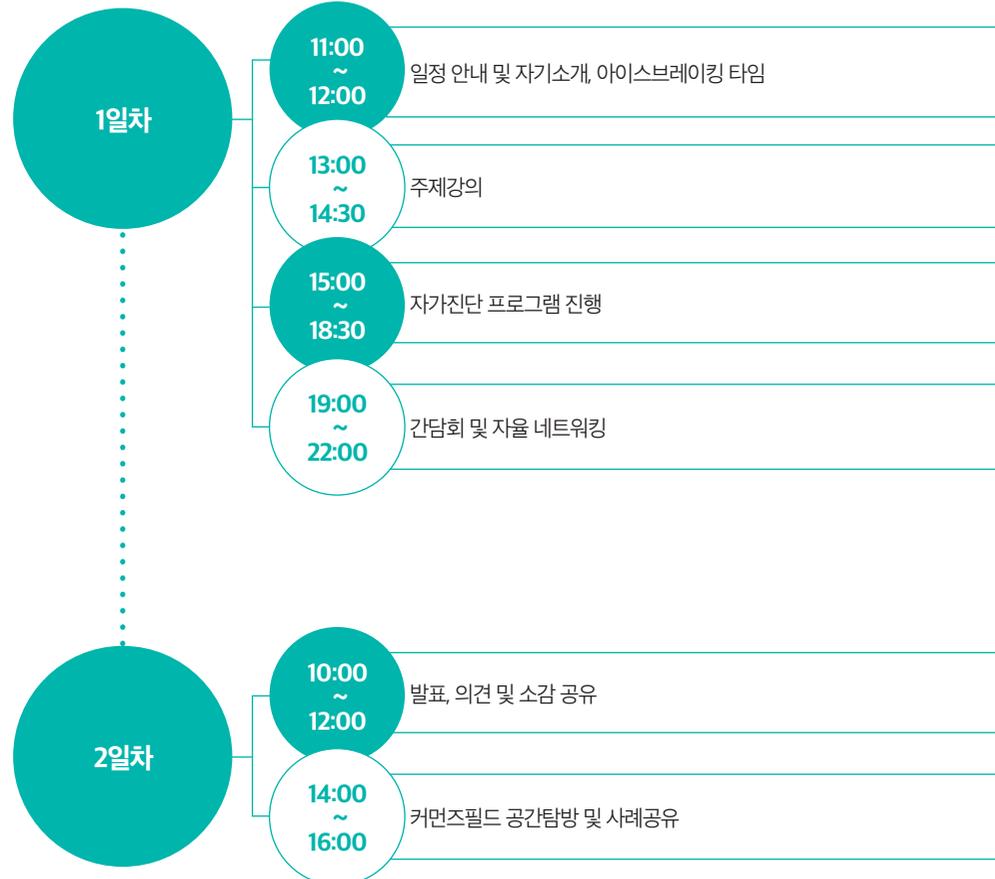
① 생활문화 유관기관 담당자 워크숍

날짜 2022년 8월 25일~26일 / 1박 2일

장소 서울시립대 강촌수련원

○ 사업내용

생활문화 강의, 생활문화기관 자가진단 워크숍, 현장탐방, 참여자 네트워킹 등을 통한 경기도 생활문화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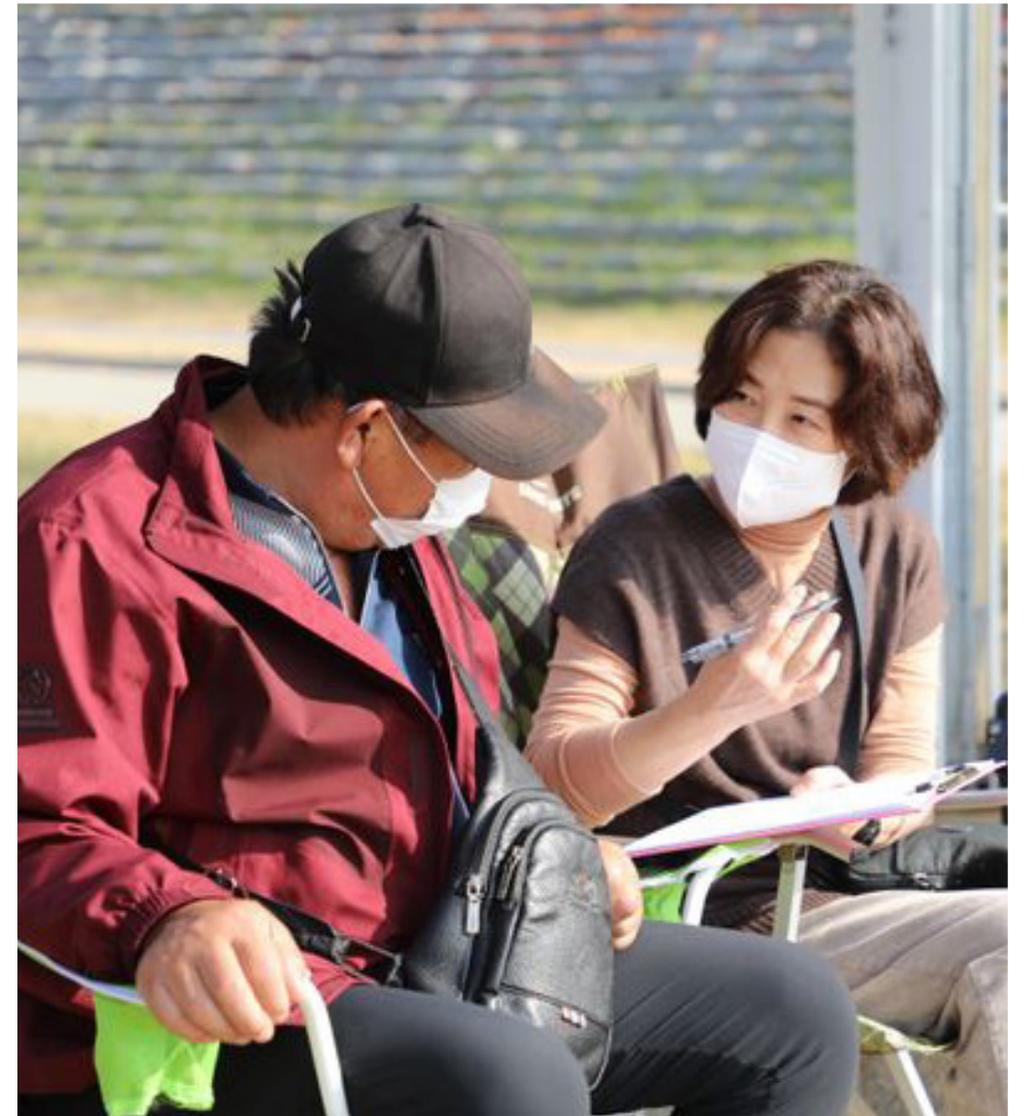


② 뚝뚝학교

- 지역 단체 및 기관과 협업하여 지역 현안에 맞는 생활문화 의제 도출
- 워크숍 및 자기배움 설계 등 강의 방식을 벗어난 생활문화 경험 프로젝트

○ 활동내용

오산 11차시 142명 참여	의정부 11차시, 86명 참여
1회차 (10.19.) 오산천에서 생활문화에 대한 경험적 이야기 나눔	1회차 (10.19.) 활동 마음가짐을 위한 삽질 행동 강령 제작
2회차 (10.24.) 이야기 후 생겨난 질문 공유	2회차 (10.24.) 삽질을 위한 각자의 땀 계획
3회차 (11.3.) 문화적 삶에 관한 이야기 나눔	3회차 (11.3.) 목적 없이 걷지 않는 틀 깨보기
4회차 (11.9.) 시민 이야기 수집을 위한 준비	4회차 (11.9.) 게임이 비생산적인 활동이라는 생각 버리기
5회차 (11.11.) 시민과 함께 이야기 나눔, 기록 (오산시민 참여)	5회차 (11.11.) 독립을 앞두고 노하우를 얻기 위한 토론
6회차 (11.13.) 시민과 함께 이야기 나눔, 기록 (오산시민 참여)	6회차 (11.13.) 먹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라면 다 먹어보기
7회차 (11.14.) 시민 이야기 수집 결과 공유	7회차 (11.14.) 항상 입는 단조로운 스타일에 변화 주기
8회차 (11.21.) 활동공유회 모임 지속성 논의	8회차 (11.21.) 사서 걱정하는 것을 고쳐보기
9회차 (11.28.) 활동공유회 준비	9회차 (11.28.) 삽질하고 싶은 사람 땀 활동 마무리
10회차 (12.5.) 오산천로 오늘은 활동 마무리	10회차 (12.5.) 양평에서 낫선 것들을 경험하며 새롭게 받아드리기(추가 활동)



③ 활짝학교

· 도내 생활문화 활동가들의 재교육 및 네트워킹 연수회

○ 활동내용

1차 사전워크숍 (10.17.)

활짝학교 내용 소개, 부어 지역안내, 활짝학교 이후 일정 안내

2차 사전워크숍 (10.24.)

각자가 알아본 부어에 관한 내용, 각자의 떠나는 워크숍 일정 공유

긴급회의 (10.31.)

원래 기획했던 떠나는 워크숍 취소(이태원 참사)로 맥락이 변화하여, 새로운 다음 일정에 관하여 이야기

떠나는 워크숍 (11.6. ~ 14.)

사전워크숍을 통하여 기획했던 것을 1박 2일 동안 충남 부여에서 6명이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개별로 떠나는 워크숍 실천

- 잠시 일상을 멈추고 부여로 리프레시!
- 계획할 때부터 시작된 여정, 획기적인 만남
- 맞닥뜨리다: 걱정수집여행
- 부여에서 옛 부여의 사람들을 상상하다.
- Dear.안도 다다오 프로젝트
- 부여에서 레트로 시간



[생활문화축제]

<우리, 생활문화, 지탱 유니버스>

날짜 2022년 12월 18일

장소 경기상상캠퍼스 공간 1986 및 컨퍼런스 홀 / 경기생활문화센터 유튜브 생중계

경기도 전역을 연결할 수 있는 온라인 방송국을 통해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축제로 경기생활문화센터 사업 참가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드는 당사자 중심의 축제

- Sec.01 지탱의 끈**

 - 축제 개막식
- Sec.02 지탱하는 힘**

 -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토론회
- Sec.03 지탱의 기술**

[현장 생활문화 플랫폼(18개)]

 -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에 있는 다양한 생활문화 플랫폼 단체들을 축제장으로 초대해 서로 교류하는 부스 운영
- Sec.04 지탱중계소**

[현장생중계]

 - 생활문화 플랫폼 현장스케치
- Sec.05 지탱가능성**

[즉흥극] 경기생활문화센터 축제의 하루

 - 축제장 내 있는 사람들과 즉석에서 짧은 극을 만들어 축제 소회를 나누는 공연

참여 생활문화 플랫폼

- 가래비 문화살롱**

생활문화의 주인공은 바로 너! 내! 우리!
'너의 이름은' 우리 서로를 부르며 가까워져볼까?
- 남양주시 문화의집**

아재들이 생활문화를 흠치다
- 동두천 문화원**

브로콜리가~ 왔어요~ & 생활문화는 팔짱을 끼는 것!
- 문화기획 협동조합 별채부록**

가꿈은, 아니 실은 각자이기도 하다.
생활문화는 사업이 아니라 삶이니까
- 문화예술 교육공동체 탐**

이웃을 만나는 즐거움 '마실'
- 민들레홀씨**

의정부, 생활문화의 새싹들이 파릇파릇.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 변방의 북소리**

보산동 지구촌 생활문화
- 씨앗플랫폼**

씨앗을 생활문화로 티우다
- 오후서재**

익숙한 산책길에서 찾는 동네의 낯선 발견
- 화전 마을학교**

마을에서 50만원 가지고 500만원처럼 살고 있는중



남부 (8)

광명문화재단 (근거한공간)

#만남 #이야기 #나눔 #이어짐 #축제

광명문화재단 하안문화의집

생기발랄 광명 별별 프로젝트(광명의 별별을 소개합니다)

문화플랫폼 열무

당신을 초대합니다

스스 스튜디오

당신을 초대합니다

아트 벨라르떼

#엔조이(ENJOY)→경춘일, 투게더(TOGETHER)→경춘인

여주시민 그림책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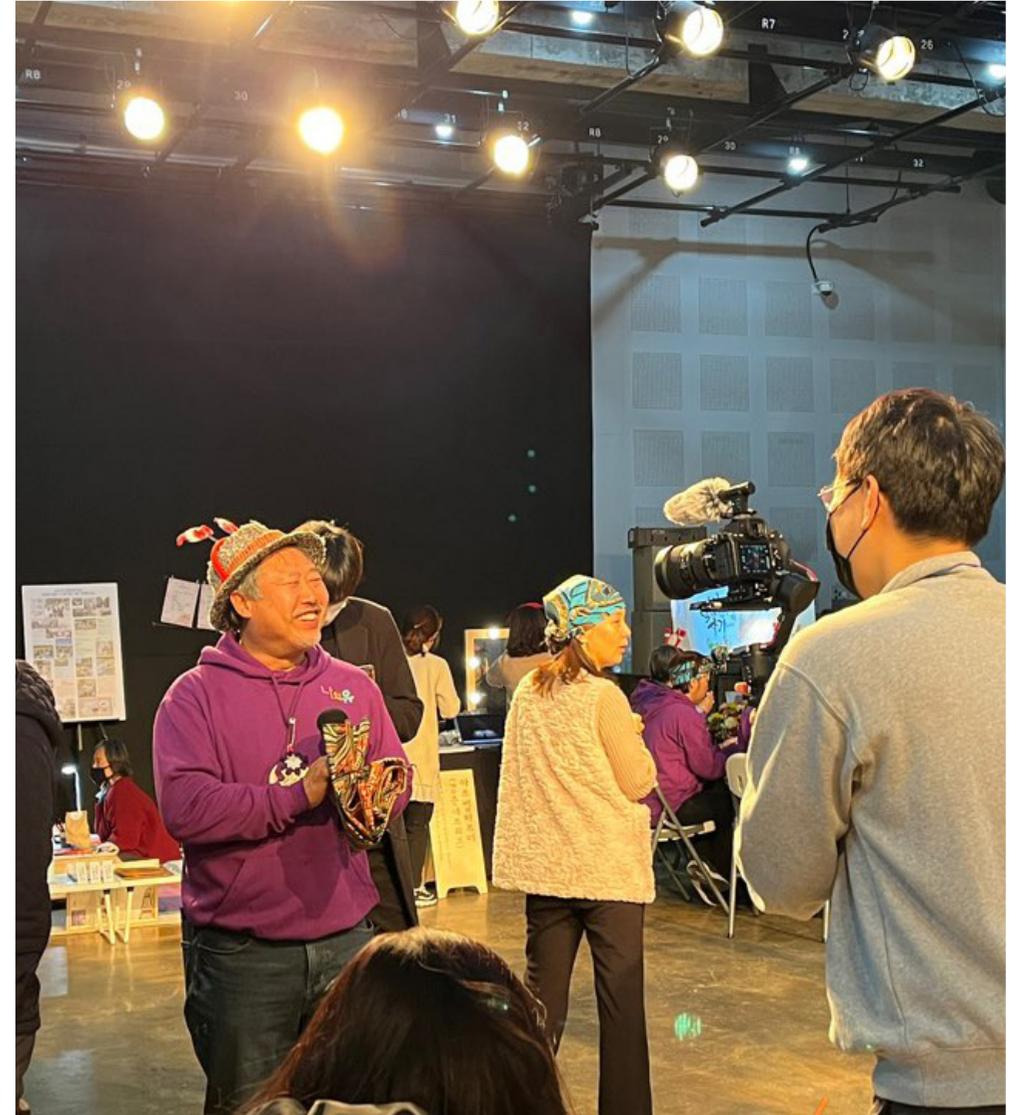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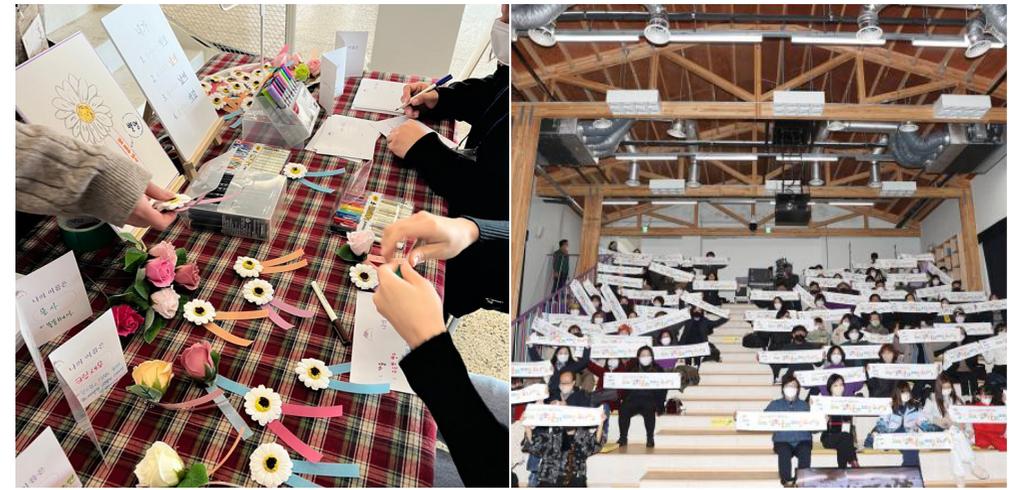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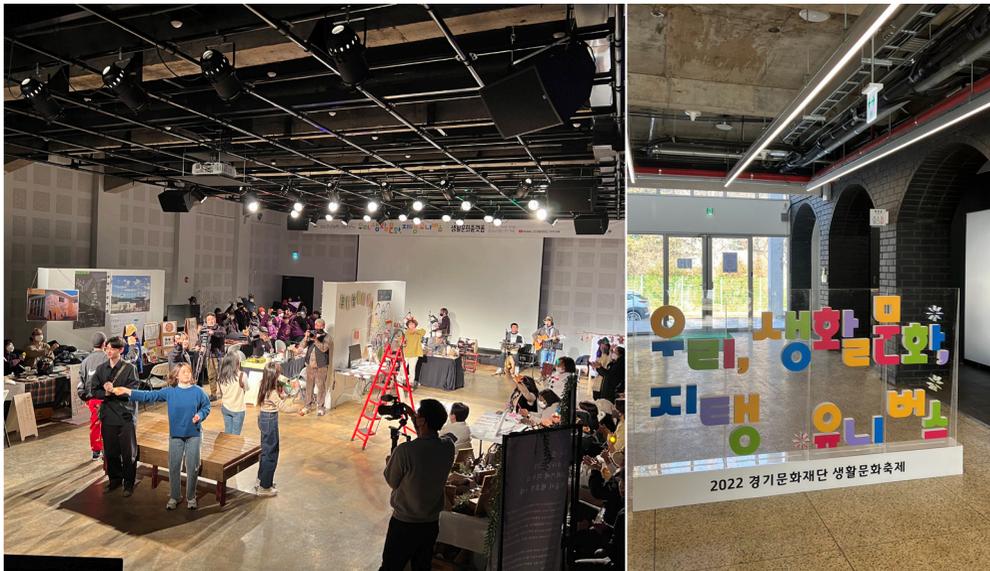
나에게로 가는 길 '나'를 기록합니다(feat. 일상그림일기)

우당탕탕 예술놀이단

흔적들... '사이에' 사람이 있다

협동조합 참좋은수다

낮열두시 놀고보고서 : 한 낮을 살다



III

생활문화 토론회 대담록

묻고, 답하고, 더해가기

[섹션1] 현장이 말하는 생활문화사업 성과 및 개선점
[섹션2] 재단이 말하는 2023년 생활문화사업 계획

[섹션 1] 현장이 말하는 생활문화사업 성과 및 개선점

권순석 | [2022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웃음) 네. 제 앞에 한 200명 정도 앉아계시기 때문에 박수소리가 아주 우렁차게 들렸습니다. (웃음) 오늘 준비된 생활문화토론회에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묻고, 답하고, 더해가기'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언어로 오늘 자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포럼, 토론회 그러면 굉장히 딱딱하고, 현장과 정책 여러 대척점에 있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보통 우리가 합의하고 생각을 보태가는 방식들이 아니라, 서로를 비난하거나 혹은 우리가 그 안에 가졌던 고민에 대해 서로 움만을 토로하다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기 전에 한 세 번 정도 사전모임을 통해서 이 포럼의 의미와 형식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 게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사실 오늘 이 포럼자리를 준비하는 그 이전 과정에 간담회, 정담회라는 이름으로 생활문화의 현장에 계신 현장 활동가들, 또 재단이나 정책관련자들 여러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소주제를 정해서 미니 발제도 하고, 의견도 듣고 거기서 나온 의견들에 다들 동의하십니다. 정책의 입장과 현장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 해낼 것인가가 우리 숙제인 것 같아요.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더해 보자'라는 의미로 오늘 자리의 의미를 '묻고, 답하고, 더해가기'라는 형식이름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를 안 하고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웃음) 저는 오늘 포럼 사회를 맡은 문화컨설팅 바라의 권순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객석 환호) 네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야하는데 시간이 좀 타이트해서 미리 양해를 구하자면, 조금 딜레이가 되더라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미리 해보게 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생활문화, 우

리 경기권역내의 생활문화 현장이 말하는 경기생활문화사업의 성과와 개선점. 뭐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현장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들어보고, 그 생각에 더해서 보태주기 전에 그 의미들은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고민들이 있었는지?' 또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생각을 보태서 또 다른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첫 번째 섹션에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재단이 말하는 2023년 경기생활문화에 대한 계획을 듣고, 묻고, 더해주고 하는 자리가 두 번째 섹션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개막식 때 본부장님 인사말에도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이 경기도 조금 나아진다고 얘기를 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기쁜 마음이었구요. 또 우리 조미자의 원님께서 힘도 실어주시고 해서 내년에 경기의 생활문화는 조금 더 풍요롭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보태지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섹션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테이블에 쪽 앉아계시는 분들이 첫 번째 섹션의 이야기를 해주실 분들인데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현장이 말하는 경기생활문화사업의 성과와 개선점에 대해서 [지혜로운 봄] 민병은 대표님, 또 우리 [문화플랫폼 열무]의 신지은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게 될 거구요. 두 번째는 현장의 의미에 대해 묻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 전수연 선생님과 [광명문화재단] 이혜진 팀장님. 이렇게 두 분이 또 물어봐 주실 거고, 그것에 생각을 보태서 우리 생활문화 플랫폼 2016년에 시작할 때부터 같이 도와주신 두 분의 선생님이십니다. 심한기 선생님, 임승관 선생님이 그것의 의미와 생각을 보태주시는, 더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게 됩니다. 전체 여섯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은 선생님 먼저 준비 되셨을까요? 네. 앞에 PPT 화면이 뜨게 되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일단은 먼저 발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은 선생님께 박수 한 번 쳐주시겠어요?

8

민병은 |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민병은입니다. 제가 한 10분 동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해야 할 일이 6년 동안의 과정을 10분에 말씀을 드려야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만 짚고 넘어가야, 지역의 현장에 계신 신지은 선생님의 얘기를 조금 더 상세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띄엄띄엄 가더라도 양해바랍니다.

일단은 한 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16년도에 시작을 해서 올해 빼고 2021년도까지 [생활문화 플랫폼 지원사업]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사업 현장이에요. 한 번 보니까 25개시에 62개소에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오늘 18개의 단체에서 오신 게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31개의 시죠? 경기도가? 그래도 꽤 많이 열심히 달려 왔구나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지금 모습을 감추시게 된 분들이 좀 아쉽기는 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가 생활문화라고 하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생활문화라는 이름이 지원 사업이라는 정책용어로 등장한 게 경기도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가 그동안 없었느냐?'라면 그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서 첫 번째 고민이 '누구랑 할 것이냐?'였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단이 만들어져서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누구랑 할 것인가?'라고 고민하면서 이때 문화원, 문화의집과 MOU를 맺고, 그분들과 일단 마중물의 형태로 시작하자라고 했었고요. 그때 민간지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조금 말이 많았죠. 민간들에 지원을 해도 될까? 그러니까 생활문화에 어찌면 효과? 성과? 중의 하나가 민간들을 활성화시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있었습니다. '생활문화디자이너'라는 말. 아무도 모르는 이 디자이너에 대해서 서로 각자 해석하고, 이때 모였을 때 동아리 대표가 오시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강좌 선생님이 오시거나 그랬었죠. 그래서 새로운 생소한 '생활문화가 뭐야?' 그리고 '디자이너가 뭐야?'라고 질문을 던졌던 그때 첫 번째 연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마을이라는 거, 그리고 함께 활동하는 주체에 대한 고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 슬로건이었었죠? '일상이 작품이 되고, 마을이 무대가 되고, 관계가 문화가 된다.'라는 멋진 슬로건이 한 1~2년 동안 굉장히 설레게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6년 성과워크숍 때 각자의 활동을 발표하는 시간을 찍은 것입니다. 2017년도 2년차 때인데요. 어찌면 이때의 고민이 2016년도와 함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16년도에는 주체를 고민했었죠. 그래서 문화의 집이나 문화원은 안정적인 공간을 갖고 있으나, 주체 활동에 동아리 중심의 활동이 있다가 아니면 기관에 소속되어있는 활동이었기에 조금 더 주체적인 활동부분이 미흡한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모습들은 다양했었습니다. 자기의 공간을 갖고 계신분도 있었지만, 단체로 활동하다보니 말하자면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되는 문제점도 있었구요.

17년도에 보면 고민들의 화두들이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내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사업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사는 장소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니?' 해서 나왔던 질문들이 경험공유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우리가 활동하는 이 지역이라는 공간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관계를 만들어가는 공간이지 않겠니?'라는 이야기들이 이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왼쪽이죠? 왼쪽 화면이 '생활문화의 발견'이라 해서, 아마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오른쪽이 성과워크숍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조금 더 늘었죠. 한 두 단체 정도 늘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모이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년도 3년차였는데요. 우리 지원사업의 3년차는 암묵적으로 올해면 끝이겠구나하는 생각들이 들죠. 불안정했던 해로 기억을 해요. 내년에도 이 사업이 살까? 이러면서 성과워크숍 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3년 동안 뭘 한 거니?' 그러면 '생활문화라고 하는 게 이것 맞아?'라는 질문이 본격적으로 이제 3년차로 들어서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렇게 '즐겁게 웃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게 맞아?'라고 하는 [참 좋은 수다]에서도 그런 얘기했죠? '우리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런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서로 해가면서 괜찮데, 괜찮데 하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그때 붙이는 이게 '생활문화가 뭐라고 생각해?'라고 물어봤을 때, '나, 우리, 함께' 더불어 즐기고 성장하는 이 공동체성에서 못 떠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파주에서도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여전히 공동체적인 활동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3년차 때에 '우리가 했던 활동이 뭘까?'라는 고민들이, 이제 '이 사업이 없어도 그동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라고 떨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자들이 원하는 생활문화를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보면 가장 흐린 게 1년차고, 그다음 2년차고, 가장 진한 게 3년차인데. 역시 기획자들은 '사업을 이해하고, 참여자들과 기획자 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는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사업의 취지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이다'라고 굉장히 느슨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궁금했었죠. 생활문화 디자이너 분들께 물어봤었어요. '생활문화란 뭐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관심분야를 배우고, 즐기고 그리고 함께 봉사하고, 세대와의 만남을 위한 소통'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3년차는 큰 차이는 없지만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있는 문화적인 측면을 찾아내 알리는 것'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무엇'에 집중되어있다

면,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디자이너란 이름이 도대체 뭐지?', '생활문화란 뭐지?'가 3년차 때부터 그동안 때어왔던 군불들이 조금 온도가 올라가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대개 3년차쯤이면 우리는 사업이 일몰이 되죠. 그런데 3년차에 활성화되고 있었고요. 그러면 너희가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했던 일이 뭐니?'하고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1년차 때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지역에 대한 자료조사도 함께 했다' 그리고 3년차 분들은 '주민들과 함께 실험을 시도해보고, 주민들이 스스로 방법을 터득하는 과정을 유도하기도 하고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3년차를 지나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살아?', '어떻게 돼?'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얘기했었는데 다행히 살았죠.

그리고 4년차로 넘어가보겠습니다. 4년차를 보시면 옆에 계신 신지은 선생님이 신규로 들어오셨죠. 사업은 신규였지만, 마을에서 사업을 많이 하셨었는데 제가 이 글을 보며 되게 웃었습니다. 굉장히 동조가 되는 거죠. 기획자라고 하는데 나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뭐니?'라고 쪽 늘어놓은 거예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기획서 쓰기', '영수증 붙이기', '입금하기', '지원금 결정을 알고 난 후 좋아하기', '월별계획서 쓰기', '통장정리하기', '홍보물 만들기', '사람 모으기', '강사에게 메일 보내기', '출석 체크하기' 쪽 가다가 '인건비 서명받기', '회의하기' 이게 기획자가 그동안 해왔던 일 아니니? 그런데 '나도 우리 중에 한 개인이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우리로 이제 행복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게 아마 사업 제목이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욕망에 대해서 이제 19년도 4년차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것들이 왜 안 돼?', '이것도 생활문화이지 않을까?', '이것도 생활문화야!'라고 하는 서서히 스스로 확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 보여 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밑에 안태호 선생님이 19년도 자료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명쾌한 개념규정이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기도 하지만, 개념을 점차 넓혀가는 것을 통해 활동과 사업이 다른 단계로 진입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생활문화에 고정된 실체를 붙잡고자 하는 사례와 시도들은 대개 실패했거나, 실패 중인 것으로 보인다. 생활문화는 자유로움으로 개념의 그물을 요리조리 피해나간 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재밌는 얘기지만 제가 이 자료집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때 19년도에 심한기 선생님이 공공의 재해석이라는 말씀으로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공공이 뭘 해야 되니? 개별의 욕망이 드러나면서 공공에 대한 질문도 같이 따라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가장 뚜렷한 차이점, 결국 생활문화 플랫폼이 지금까지 잘 이어져온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유동적 상황과 조건에 대한 의도적이며, 느슨한 기다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공모사업의 끝은 늘 사업적 성과에 집중되기에 현장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 기다림은 존재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것을 응원하고 지원한 일은 불가능에 있지만 그것이 유동적인 상황과 조건에 대한 느슨한 기다림이 이걸 이어왔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저도 사실 짜고 쓴 건 아닌데 그렇게 썼더라고요. '현장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자율성의 확보와 충분히 흔들려도 된다'라고 믿어주는 지지다. 이게 경기생활문화 플랫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썼는데 요번 축제도 지탱하는 유니버서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했던 지점이 이때 경기문화재단에서 동호회 지원사업과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을 갈래를 가르마를 타주셨습니다. 그전에 '생활문화 플랫폼이 뭐야?', '생활문화 지원사업이 뭐야?'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대개 동호회 사업들이 같이 함께 물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한때 예산이 엄청 늘어나기도 했었죠. 이것을 고민해서 재단에서 정책적으로 갈래를 타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요. 이때 문화의집, 경기도 문화의집 협회만 활동할 수 있는 안들도 만들어내고 지원의 방식을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트랙을 타서 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이렇게 성과워크숍... 오늘이 있기에 마지막 전이었죠. 굉장히 재밌게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서로 이때 많은 걸 보고 갔다... 약간 뭐라 그럴까? 박람회 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내 부스를 지키고 체험하는 게 아니라, 남의 부스에 가서 좀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들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19년도에 가장 많이 논의가 활발히 됐었고, '왜 개인적인 것은 공공적인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고, '내가 하는 것도 생활문화 활동이 맞데!' 그러다보니 한 자리에서 일곱 살 아이부터, 여든여섯 살 되는 우리 할머니까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죠.

그러다 2020년도에 저희가 코로나를 맞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것이 온라인 특강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문화 이게 하는 게 뭘까? 그 생활문화라는 걸 다른데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이 뭔데?'라고 하는 걸 고민하면서 이제 온라인특강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을 함께 했던 분들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이를 동안 7개의 방을 만들어서 자율적으

로 원하는 방으로 옮겨 컨설턴트로 참여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온라인상으로 왔다 갔다 하며 참여의 자율성을 갖고 이야기를 진행해봤었습니다. 이런 것을 모아서 '달빛토크'라는 걸 진행했죠. 이 달빛토크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달빛토크만 하기 위해서 딱 나온 게 아니라, 이 과정들을 다 묶어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도요? '생활문화 활동가 학교' 심한기선생님이 이거 해야 된다고 주장한지 4년인가 5년 만에 이걸 '똑똑학교', '활짝학교'라는 걸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의 한계점이랄까? 고민이 있었죠. 주어진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찾는 사업을 했던 것 같고요. 깊게 파기보다, 그전에 넓게 파던 것 같습니다. 연결망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고요. '우리는 지역을 사업의 장으로 본 게 아니라, 삶의 장으로 봤던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나 성과제시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찾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8

권순석 | 네. 고맙습니다. 6년을 10분에 요약하라 한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웃음) 시간을 좀 더 드리려 노력했구요. 사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그럼 '경기도 생활문화 플랫폼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지금 현재 올해 사업에 그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진 않지만, 그 의미와 가치를 광역의 역할에서 기초의 역할로 전달하는 과정 중에 있는 과도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민병은 선생님 발제를 들으면서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처음에 경기문화재단의 연락을 받고, 이 사업을 제안할 때 '생활문화 디자이너'라고 하면 당시에는 굉장히 허황된 개념 같았거든요? 그런데 민간의 제안과 정책이나 행정은 사실 예측되지 않는 결과를 가지고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상호 신뢰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온 것들이 아마 여러 성과들을 내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경기도는 생활문화 플랫폼을 보유한 도(道)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민간현장의 이야기를 조금 보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플랫폼 열무의 신지은 대표님 말씀 바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8

신지은 | 네. 저는 제 앞에 있는 판넬에 '문화플랫폼 열무 대표 신지은'이라 적혀있는 이름

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 저는 계속 동네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이었고요. 문화플랫폼 열무는 올 7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대표라는 말이 플랫폼이라는 말과 어울리는 말일까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는데요. 대표는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사람들, 어떤 지역, 어떤 영역을 대표하는 것인데 제가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는 플랫폼은 누가 누군가를 대표하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열무 대표라는 말 대신에 다른 단어를 사용한 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아주 잠시 했습니다.

민병은 선생님이 발제하시는 중에 제가 19년에 썼던 글의 내용을 올려주신걸 보고, 혼자 많이 웃었는데요. '아, 맞다! 저때 그랬었지' 내가 이런 저런 일을 하는 사람에서 조금 뭔가 다른 문화기획자가 되었다는 느낌을 이 사업을 통해서 좀 알게 되었구나하는 생각도 했고.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하셨는데요. 2019년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제가 썼던 기획서 제목이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로 했다'였습니다. 굉장히 선언적이죠? 사실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고 너무 유치한 제목이 아닐까싶는데, 제가 그런 제목을 쓰게 됐던 그 당시에 저와 저를 둘러싼 마을은 절박했습니다. 저희 마을은 10년 넘게 마을에서 이러저런 공동체를 정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고, 협동조합만 해도 저희 마을에 다섯 개가 넘게 있었거든요. 저희는 공동체를 이루고 행복하게 뭔가 좋은 일을 하자면서 살고 있는데, 저희가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너무나 많이 소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어떻게 뚫어나가야 될까?' 또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어떻게 견뎌야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저희가 잡았던 도구가 바로 생활문화였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4년 동안 했던 것을 저렇게 한 다섯 줄 정도로 썼는데, 다섯 줄 쓰니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뭔가를 많이 했었거든요. 장르적으로도 글, 그림, 춤, 노래, 기록까지 다 했었고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물론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남성분도 계셨고, 20대부터 60대까지 저희 생활문화의 어떤 영역 안에서 참여해서 뭔가를 했었고요.

사실은 저희가 방식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같이 사용했는데요. 저희가 비대면 방식을 사용했던 것은 코로나 이전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대면 방식으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냐?', '우리는 너무 바쁜데, 언제 만날 만가지고, 언제 만날 얘기 하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저희가 그때 같이하는 방식과 혼자 개인이 하는 방식을 동시에 사용했는데요. 요즘 친구들은 혼자 뭔가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했지만, 그때 그 당시 저희같이 공동체를 지향하는 어떤 동네에서

혼자 뭔가를 한다는 건 실험이고, 모험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될 거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다행히 저는 그 실험과 모험이 일정 정도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년 동안의 시간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누군가가 저한테 ‘그럼 4년 동안 이것저것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다했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왜 그랬냐하면 저희가 플랫폼이 었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조직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리고 회의를 해서 합의를 보고, 뭔가 착착착 진행되는 일이었다면, 아마 저는 이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했던 일이라곤 저쪽에서 툭 튀어나오는 이야기, 이쪽에서 툭 튀어나오는 욕망, 그리고 정말 너무 웃기는 제안, 심지어 훌라덴스를 한번 춰보자고 하는 저로서는 좀 충격이었던 제안들까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저 연결하고, 모으고 그리고 자리를 만들어드리는 일이 기획자의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저도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참 많이 제안했어요. 물론 일은 많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즐거웠고, 이전의 다른 어떤 지원 사업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었죠. 사실은 사업하는 내내 제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도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4년 동안 하면서, 저는 약간 주관적이긴 하지만 저희 동네문화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건 저의 주관이고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제가 좀 바뀌었고, 제 지인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는 그 ‘바뀜’을 처음 했던 것처럼 행복하게 저희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 중에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었는데 하나는 ‘문화나 예술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야’, ‘예술가가 하는 게 아니야’라는 것들을 저희 몸 안에 익혀 내기 시작했구요. 그걸 저는 저 밑에 있는 ‘하고 하고 정산’이라고 저희들끼리 맨날 장난치면서 얘기하는데, 두 번째는 저희가 낯설고, 어색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그런 어려움들을 잘 적응하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뭔가 계획하고, 이 계획한 것을 목적에 맞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계가 어떻게 변하든,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든, 우리는 변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저는 그걸 근육이라 부르고 싶어요. ‘문화근육’이고 ‘일상근육’인거죠. 정말 근육이 맞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희 몸속에 탑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문화 근육이라 불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7월 달에 안산의 변두리 동네에서 아주 조그마한 공간을 열었습니다. 문화플랫폼 열무이고 아까 소개했듯이 제가 지역아동센터 동네 지도교사에서

공간 주인장이 되었습니다. 문을 열면서 제가 생각했던 원칙중의 하나는 구체적으로 이거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이 공간이 물리적 공간이나 프로그램 교육공간이 아닌, 공간 자체가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공간 자체가 플랫폼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원칙적으로 머리에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현해야 될지는 잘 몰랐었고요. 그냥 되는대로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닥치는 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다행히 올 하반기 동안 저희 공간이 플랫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기록으로 사람이 연결이 됐고, 글쓰기로 연결이 됐고, 또 ‘걷고 또 걷는 사람’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길고양이하고도 많이 친해졌습니다. 이걸 제가 자랑을 좀 더하고 싶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아 이게 큰 의미가 있었고, 저희 열무공간이 플랫폼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공간 문을 열고 새로운 공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처럼 아주 작은 공간이었고요. 그 공간들은 빵집도 있었고, 실크스크린 작업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 청소년들과 이것저것 하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이 공간들의 특징은 다 열 명이상 들어가기 힘든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간들하고 저희하고 프로젝트 진행을 했죠.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초대’였구요. 이 초대는 다섯 개 공간에 여섯 명의 기획자가 참여하는 교류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이 초대라는 프로젝트를 역시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는 저기 공간에 여섯 명중에서 기존에 생활문화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은 딱 한명이었습니다. 다섯 명은 사실 생활문화라는 단어도 익숙지 않았고, 그저 공간에서 ‘우리 좀 재미난 걸 해보자’, ‘사람들을 초대해보자’라는 저의 제안에 화답했던 친구들이었고, 이 친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 이게 생활문화구나!’, ‘생활문화는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저와 같이 확인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랑하고 싶은 게, 보이시는 사진이 사실 왼쪽 사진은 혼자 있는 책상에 뭔가를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오른쪽은 공연사진이 아니라 리허설장면이에요. 공연을 위해서 빨간 옷을 입은 분들이 리허설을 하시는 장면인데. 이 두 가지 사진이 서로 굉장히 이질적이잖아요? 한쪽은 정적이고 혼자 있고, 한쪽은 여러 사람들이 신나게 노래 부르는 그런 장면인데. 이 사진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12월 9일 날 저희 초대 공유 나눔 날에 거의 여섯시쯤에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한쪽에서 이렇게 조용히 지내고 있고, 한쪽에서 이렇게 공연을 위해 리허설을 하는 것들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진행이 됐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졌고. 저는 이사진을 PT를 만들면서 보면서 저 혼자 약간 몽클하고 ‘아! 정말 아름다운 광경 아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 일 년을 보냈고요.

제가 오늘 발표를 제안 받으면서 일 년을 곰곰이 떠올려보고, 저희 4년을 떠올려 보면서 '이런 활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나?'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건 바로 '플랫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경기문화재단과 저희 민간이 관계 맺었던, 관계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처음에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 사업을 할 때, 조금 신기하고 이상했어요. 보통 제가 지원 사업을 하면 만날 수 있는 재단 직원은 한 명에서 많아야 두 명, 그리고 전문가 선생님들도 보통 모니터 오시는 선생님들 한 명.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지원 사업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일 년에 한 번, 그것도 아주 딱딱한 결과보고회 정도였는데. 저는 4년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도 저희 단체를 도와주시는 담당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을 여러 방식으로 만났고. 그리고 옆에 우리 전수연 선생님도 계신데 전수연 선생님한테 제가 요즘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거든요. '선생님 정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 하나하나 하면서도 지금도 재단 직원 선생님뿐만 아니라 팀장님이나, 김OO 선생님도 제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안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생활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분들과도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식적인 관계에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만났습니다. 서로서로 교류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활동가학교에서 만나기도 했고, 이런 워크숍자리에서도 만나기도 했고, 그 자체로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역시 예측가능하지 않은 다른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만남들이 경기문화재단이 그저 지원하는 지원처 아니면 협업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플랫폼을 조성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동네에서 플랫폼을 자처하듯이 경기문화재단이 저를 품어줄 수 있는 플랫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재단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맘대로 하라고, 잘 할 거라고' 근데 이게 맘대로 하고, 잘할 거라는 게 그냥 방치를 하거나 칭찬을 하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자유를 허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저 자유롭게 하기만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활문화사업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경계가 흐려질 수도 있고, 공공성을 놓칠 수도 있는데 그 테두리들을 경기문화재단이 잘 잡아줬고 저는 그 속에서 굉장히 안전하게 4년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호시절이 계속 올 거라고 사실은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냥 그랬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건, 또 생각해보면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그저 비슷한 형태로 잘되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확장이 되는 과정은 어쩔 수 없이 낯설고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되는데 지금 저는 기초재단과 만나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솔직히 싫더라고요. 계속 경기문화재단하고만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 싫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는데 제가 좀 자신감이 배짱이 생긴 것 같아요. 그 배짱이 뭐냐면 경기문화재단과 관계 맺었던 것을 통해 제가 알게 모르게 학습이 되고, 그야말로 근육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냐하면 '기초재단이 우리를 지원해주는 거만 아니잖아?', '민간인 우리도 지원할 수 있잖아!' 물론 지원이라는 게 돈과 노동력이 아니라 다른 형식도 가능할 것이라는 배짱이 좀 생겼고요. 그리고 시간 역시도 상황이 있고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민간인 우리가 기초재단을 기다려줄 수 있지 않나?' 너무 심한가요? (웃음) '우리가 기다려 준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런 자신감은 또 경기문화재단이 여전히 저희한테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특 튀어나와서 '경기문화재단, 저기 이제 기초랑 알아서 하세요!' 이런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수원에서 일하는 동료들, 여러 동료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저는 평가 개선점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항목을 보면서 딱 한 가지만 말을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만남들을 사적인 만남이 아니라 공식적인 만남과 형태였다고 했는데, 4년이 지난 지금에 저희가 했던 다양한 교류와 만남과 연결들이 그 방식과 의미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돼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마칠게요.

8

권순석 | 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말고 그럼 문화플랫폼 열무의 신지은 선생님의 발제를 들었고요. (웃음) 앞에 두 분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민병은 선생님하고는 이 경기 생활문화 플랫폼 처음 제안 때부터 지난 한 6년 여간 같이 해오면서 전체적인 열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다면, 또 신지은 선생님은 본인의 현장에서 겪었던 소회와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가능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묘하게 맞는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키워드도 있었고, 내용 의미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더해주시실 두 분은 하실 말씀이 점점 많아지실 것 같고요. 일단 저희 포맷 상 이런 이야기들 그 민간에서 부여하는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 경기문화재단의 전수연 선생님, 또 광명문화재단의 이해진 선생님. 어찌 보면 '공공

의 입장을 좀 들어보자라는 건데 제가 미리 부담을 좀 덜어드릴게요. 광명을 대표해서 혹은 경기를 대표해서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재단의 담당자로서 개인적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을 좀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먼저 전수연 선생님 마이크 먼저 드릴까요?

8

전수연 | 네. 안녕하세요.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의 전수연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 경기문화재단을 대표하는 이야기는 이후에 저희 팀장님께서 정리해주실 거고, 저는 권대표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냥 객관적인 생활문화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올해 사업을 처음 대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부분과 궁금하게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신지은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저는 처음 여기 생활문화사업을 담당하면서 '생활문화 플랫폼은 다르다', '경기문화재단은 다르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실 저에게는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던 것이,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담당하면서 진행했던 방식이 아닌 부분들로 많이 진행되기도 했기에, 어떻게 보면 초반에 저도 스스로 혼란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컨설턴트 선생님들과 저희 사업을 많이 진행하면서, 많이 만나 뵈고, 회의를 하면서 해주셨던 많은 말씀 중에 '만나야한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줌으로도 많이 만났고, 현장에도 많이 갔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문서로만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방향성들이나 의미들이 만나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생활문화 플랫폼이 없어지고 어쨌든 올해사업이 기초재단으로 이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 플랫폼 단체에 계신 분들이 올해 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시지 않음에도 어떤 행사나 회의나 있으면 언제나 와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생활문화 플랫폼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 생활문화 플랫폼이 다르다. 12월이 되었지만, 사실은 저도 그것에 대해서 왜 다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경기문화재단과 생활문화 플랫폼 선생님들이 만나서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믿음이 내년 에 다시 생활문화 플랫폼이 생긴다면 어떠한 믿음으로 생겼는지 그런 걸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재단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정담회 운영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민병은 선생님이 개별의 공공

성을 많이 말씀해주셨어요. 사실 올해 기초재단으로 이관을 하면서 추진단 선생님 들께서 많이 말씀해주셨던 부분 중 하나는 '지역의 차이가 다르다', '시작이 다르다' 지역별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사업을 구성을 하면서 저희가 생각해놓은 틀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거기 끼워 맞추려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역별로 다른 것에 대해서 많은 인지를 못하고 시작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만들어놓은 틀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각각의 모양과 특성에 맞춰서 틀을 맞춰나간다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개별이 변해야 주변이 변한다고 말씀해주신 부분이 그런 방향으로 이뤄질 것 같습니다. 네. 저의 간단한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8

권순석 |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담당자의 변화가 조직의 역량으로 축적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조직의 원리상 자리를 옮길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경험과 생각들이 어딘가에 좀 축적되어, 누적되어 계속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또한 플랫폼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본 것 같습니다. 광명문화재단 이혜진 팀장님 마이크 드리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

이혜진 | 네. 저는 오늘 재단에게 현장에 대해서 뭘 물어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참여를 해달라고해서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요. 사실은 기초문화재단 중 요번에 플랫폼 사업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재단은 저희 재단이 유일하다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역에 있어서 기초문화재단은 공공에 한계가 있죠. 일단은 기초에서 생활문화공간이란 것을 가지고 있었으나, 2년 동안 코로나가 닥치면서 거의 문을 못 열다시피 했습니다. 기존에 지역에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던 공공의 공간이 문을 닫게 되는 한계가 생겼고요.

사실은 기초문화재단도 조직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바뀌고, 생활문화사업 같은 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만큼 얼마나 쌓아왔는가 중요하데, 직원들이 딱 바뀌고 나면 서로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직원도 당황하고, 참여자도 당황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는 기초문화재단이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그 앞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이것을 '조금 더 완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공공 공간을 운영하는 기획자들을 저희가 발견해주고, 그 기획자들이 이런 무대로 설수 있게 하는 거. 기존의 동아리 활동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거에 좀 좁혀있었다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공간을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실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만들어보려 올해 참여를 했고요. 사실은 요번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아 경기에서 이런 거 한대요!' 라고 해서 저희가 손든 게 아니고, 연초에 공간운영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간네트워크 만들어 보고 싶고, 기획사업도 만들어보고 싶은데 뭔가 하고 싶어요!'라고 찾아오셨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기초문화재단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시거든요?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좀 어려워 하셨는데, 되게 용기내서 문을 두드려 주셨어요. 저희가 일단 그렇게 들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두고 있다가 '아 이번에 경기에서 플랫폼 사업할 때 이분들을 데뷔 시켜보자!' 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기초문화재단도 오래된 재단도 있지만 대부분 다 유아단계예요. 막 발을 떼고 있는 단계의 재단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지역에 있는 단체들, 기관들하고 재단들은 같이 성장이란 단어는 보다 상장? 서로 자라야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많이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 같은 경우도 대략은 알고 추측은 하지만, 지역에서 생활문화 활동하시는 분들이 재단에서 뭘 불편해하시는지에 대해 좀 들어야겠조. 용기 있게 문 열어주신 참여자분들에게 감사하면서 올해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 기초는 일단 지역에 있는 기관들을 발견하고 무대에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문화재단에서 광역으로 열심히 홍보를 하시고, 발굴하시려 하겠지만, 기초에 있는 모든 세세한 단체들을 모두 발견해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발견해주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도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게, 저희도 문을 두드릴 수 있게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우려가 있어요. 저희도 조직개편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올해 생활문화팀을 꾸렸지만 내년엔 또 어떤 분들이, 어떤 직원들이 와서... 전수연 선생님 처음 왔을 때처럼 '이런 방법의 사업도 있군요?'하고 새롭게 배워가는 과정을 1년 동안 겪어야하는 친구들이 오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실 거라고 저희가 미리 예방주사를 놓아드렸습니다. 일 년 내내 '저는 올해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고 있고, 이 상황이 너무 좋고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정말 좋지만 저희는 언제든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어요. 멀리 떠나는 게 아니지만, 지켜볼 수 있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우리는 이렇게 갈 겁니다!' 라고 조금 더 용기내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힘을 받고 행동을

이어가실 수 있어요. 저희는 경기문화재단에도 요청하는 거는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저희 기초에 있는 재단들이 소통을 할 때에 경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너무 사업이 어려운데?' 재단은 안 그래도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까하고 접을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요번에는 우리 경기문화재단 사업 들어가지 말자!' 할 때가 많은데 조금 더 재단을 설득해주시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설득이 되면 이전에 쌓아왔던 예술단체들, 그리고 생활문화단체들이 좀 트일 수 있거든요. 사실은 기초에 있는 재단들 문 두드리기 힘든데, 정말 경기와 연이 없던 단체들이 경기의 문을 두드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기초에서는 새로운 직원들이 그런 것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직원들에게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두서없지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권순석 | 네. 고맙습니다. '서로 더 가까워 질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으로 발제해주셨는데 제 귀엔 그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가까워지고 싶어요! 함께해요!' 뭐 이런 이야기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일이라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죠. 그런데 플랫폼이 갖는 지향은 사실은 '사람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의 힘' 아닐까 생각합니다. 광명을 계속 같이 도와주고 계시는 이초영 선생님도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이따 같이 토론할 때 또 한 번 말씀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앞의 이야기들을 꼭 들으시면서 아마 생각이 되게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 이 사업 처음부터 우리 같이 도와주고 함께 해주신 선생님이지요? 심한기 선생님, 임승관 선생님한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여쭙는 거고, 앞에 분들에게는 생각을 더해주는 역할입니다. 먼저 심한기 선생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한기 | 네. 잘 들었고요. 그 저도 광역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돕는 일을 꽤 오랫동안 했지만, 플랫폼 사업처럼 6~7년을 한 것은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민병은 선생님과도 가끔 '왜 이렇게 하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원인은 하나인 것 같아요. 할 만하고 재밌으니까. 현장하고 재단하고 만들어가는 재미를 이렇게 갈수록 쌓아가는 일은 제가 밖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처음 느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7년이 되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박미숙 선생님, 김민정 선생님 다 와계시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거의 동반자 같은 5~6년 이상의 과정이. 그리고 또 그런 쌓아오는 과정이 아까 조미자... 지금 의원님이군요... 평소에 누나라고 그러는데 의원이 되어나 오시고 (웃음) 예전에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이런 과정들이 플랫폼이 주는 힘이었고요. 오늘은 꼭 그걸 더해주는 역할이니까, 사실은 빼고.

저는 플랫폼 안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을 봤다고 봐요. 일단 규정하지 않고, 출발했거든요. 처음에 초기에 설계했던 분이 오늘 좌장을 맡은 권 대표님, 최혜자 선생님 이렇게 계시지만, 규정하지 않고 출발했었고, 과정 속에서 축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민병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에는 보이지 않는 '3년의 룰'이 있잖아요? 그거를 넘어섰는데. 그거를 물리적으로 넘어선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의 힘들이 결국 3년을 넘어서게 했죠. 플랫폼사업에 5년 동안 참여한 팀들이 적지 않아요. 졸업장도 주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다시 활동을 하고, 새로운 현장과 연결되어있고, 그 5년을 졸업하고 오늘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은 보통 공모사업은 성과를 내는 것에 중심을 두지만 플랫폼의 사업은 잠재성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공모사업의 반전이라 생각하고, 가능성이라 생각하고 결국은 느슨하지만 나름 그 신뢰가 만들어졌던... 공모사업을 하면서 신뢰가 쌓이는 일은 많지 않거든요. 반목이 쌓여가거나 그렇죠. 그래서 '재단과 현장', '현장과 현장' 또 재단과 현장을 연결하는 저희 추진단, 컨설턴트 이런 신뢰가 쌓여갔다는 것에 의미를 꽤 뒤야 되고. 이 의미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과정에 반드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결국은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광역에서 공모사업을 했다가, 작년부터 이제 기초로 내려갔잖아요? 저도 처음에 기초로 내려간다고 해서 굉장히 화가 났었거든요. '5년 동안 잘해왔는데 갑자기 기초로 넘겨?', '뭐하는 거야?', '도의원들 도대체 정신머리가 있는 거야?' 엄청나게 화가 났었는데 실제로 이것이 기초로 넘어갔을 때의 장점을 확인하게 되면서 또 우리가 해왔던 과정들이 기초로 변형이 되었는데 흔들림 없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야~ 우리가 쌓아온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광역과 기초가 어떻게 내년부터 이것을 이어갈 것이냐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재단에서도 오늘 오셨는데 이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보통 기초재단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현장에 내려 보내는 건데 플랫폼사업, 생활문화사업 같은 경우 이미 현장이 조금 준비가 되어있고 기초를 좀 손을 내밀고 초대를 하거나, 설득하는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태까지 벌어지

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것들의 가능성이나 잠재성 등이 앞으로 어떻게 연결될까를 설계하는 게 광역의 역할이고 기초는 아까 설득도 좀 하고, 제안도 하고, 초대도 하고 하면서 기초가 정말 이 사업, 이 지향을 기초의 중요한 맥락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같이 플랫폼이 만들어갔던 신뢰를 기초와 만들어가는 과정이 내년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제가 7년째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거라고 봐요. 내년부터는 기초와 광역과 현장의 그런 새로운 생활문화 속에 역할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시작되는 지점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해보면 약간 걱정이나 우려보다는, 가능성이 더 저는 많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좋은 거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안 좋은 건 선생님이 하실 거고. (임승관 선생님을 가리키며) 걱정되는 부분은. (웃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6년의 과정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해석하고,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정도 하겠습니다.

8

권순석 | 네. 고맙습니다. 임승관 선생님은 미션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걱정의 생각을 좀 더해주세요.

8

임승관 | 네. 발표시간이 길지 않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것 다 빼고, '꼭 안하면 안 되는 이야기가 뭔가?'라고 정리를 해봤는데,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해요. 제가 요즘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느꼈던 되게 놀라운 그런 차이점이 뭐냐 하면, 단체장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단체장들이 다 바뀌면서 '생활문화나 '주민자치'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요. 저는 단순하게 그냥 먼저번 정권의 흔적지우기라던가 뭐 이렇게 생각하며 약간 화도 났어요. 근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나름의 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회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건, 법에도 있는데 정부와 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정책수혜대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왜 주민들한테 넘기냐?'라고 하는 거죠. '왜 부담을 주민들한테 줘?', '욕을 먹어도 우리가 먹어야지'라고 하는 나름의 충성심 같은 게 있어요. '생활문화 그거 개나줘!' 이걸 단순하게 볼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생활문화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나온 얘기 적어보니까 '모여야 한다!', '재밌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만나야 한다!'래요. 맥락이 너무 깊어요. 왜 만

나야 되는지, 다른 거보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꼭 해야 하는 지가 다 숨겨져 있지 않아요. 아래가지고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면 '하면 좋은 건 알겠다. 근데 좀 이따 하자'에 설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여가예요. 그리고 비생산적인 활동입니다. 이걸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거나, 거기에 흡집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선한 지도자가 오기를 기도하는 거, 선거 때 열심히 하는 거 말고 할 게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곳으로 이사를 가던가. 그래서 5년 됐으면, 이렇게 수동적인 것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지금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문화자치'입니다. 문화자치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도 계속 나왔지만 국가의 예산이 정부로 이양되는 거예요. 그러가지고 여기서 잘 주민들과 합의해서 알아서 분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뭐냐 하면 생활문화공간이라던가, 커뮤니티는 거기에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협상대상이 아니예요. 대표성을 띤 주체가 없어요. 수가 많은 건 알겠어요. 근데 누가대표냐고요? 예술인, 음악인 뭐 이런 거는 협회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예산을 어떻게 좋겠습니까?'하고 논의하고 합의하는 게 되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없어요. 누군가 대신 해줘야 돼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문화민주주의 이후에 다가올 문화자치시대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우리의 협상력을 높일 것이냐?' 그리고 '협상대상이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상호의존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는 거, 이걸 재단에서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기존처럼 '여론을 수렴하거나, 참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정말로 물어봐야 해요. 정말 그걸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고, 책임질 수 있냐고 물어봐야 돼요. 정책을 제안을 하면, 의원들은 밑에 자기 이름들을 다 적어요. 누구누구 의원 외 몇 명 발의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성을 느끼라는 거고. 저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한다? 그러면 공을 넘기는 거예요. 이거는 제도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준에서는 재단에서 권한을 줄 순 있어요. 근데 책임을 못주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책임을 못주니까 권한도 못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는 내가 보니까. 알아봐주지도 않을 거고. 이런 관계로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건 시범사업이라도 책임성을 느낄 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민간에서는 '우리는 아무 준비가 돼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른 단체를 체험하고 교류하는 거에서 일단 친밀감과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논의하는 게 익숙해질 수 있고, 합의하는 게 어렵지 않게 되고, 그것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해서 실천해봤는데 된다고 하는 작은 것에서부터 집단적 성취감을 느끼는 게 쌓여야 돼요. 그래야 재단이 '준비 다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준비됐어요!' 그러면 만나서 하는 게 거버넌스거든요. 이제 그거 할 때가 됐습니다. 계속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4~5년 동안 했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는 다 알겠는데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나오는 건 공식적 그러한 자율적 자치구조, 즉 공간들이 지금은 협력대상이라고 말은 좋지만 사실은 경쟁관계로 만들어놨잖아요? 지원을 받아서 선정을 다 시킬 수는 없으니까 누구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봤을 때는 알게 모르게 경쟁관계예요. 근데 어떻게 진정성 있게 협력파트너를 합니까? 그래서 선정과정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 구조 때문에 도대체가 협업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좋은 정보를 줬는데 그 사람이 잘 알아듣고, 약간 다듬어가지고 지원금을 냈는데 선정됐어? 근데 우연히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내가 떨어졌어. 근데 이게 반복되면 알려주기 싫어요. 알려줄 수 없어요. 동기가 안 생긴다고요. 근데 선정과정을 바꿔가지고 함께 선정하는데 배심원처럼 참여한다던가 했을 때 즉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정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의 수십 년의 제도를 고집하면서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라니요?', '네트워크를 하라니요?', '상호의존관계를 만들어라' 이거를 계속 꾸준히 요구했는데 현장에서 듣기에는 내가 참 못된 사람처럼 된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양심에 호소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위축될 수 있어요. '나는 왜? 우리 마을은, 우리 지역은 네트워크가 안 되는 거야? 이기적인가?' 이렇게까지 가버립니다. 근데 그거는 구조가 잘못되어서 그런 문제지, 성향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빨리 고쳐서 실험해야 된다 해서 자율적인 자치구조가 즉 '우리 모두의 이익이, 나와 내공간의 이익이 된다'라는 인식이 생길만큼의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재단이나 시에서는 공인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문화자치시대 때 호명될 수 있어요. 저는 올해는 그거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누구 만나더라도 그런 마음을 품고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그것이 공동의 목표가 되기 위해서 계속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석 | 네. 감사합니다. 큰 숙제를 던져주신 것 같아요. 아까 두 분 더하기 말씀에 보면, 어찌 보면 무모할 정도의 용기로 규정 않고 시작한 출발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과정을 채우고, 결과를 만들고, 이제 확장해가려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5년이 걸렸다면 또 우리가 이것을 확장하는데, 또 다른 5년을 필요로 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또 우리 임승관 선생님이 생각을 보태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단순한 현장의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 안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도 안에서 확립해나가느냐에 대한 근본적 고민도 함께하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논의구조와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화할 수 있는 가라는 고민의 화두도 던져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섹션 이야기는 이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겠고요. 저희가 또 다른 패널 분들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한 5분 정도. 지금 25분인데요, 30분부터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를 함께 해주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이 말하는 2023년 생활문화사업 계획

권순석 | 네. [2022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토론회]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묻고, 답하고, 더해가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 뉴 페이스들이 나오셨습니다. 먼저 잠깐 소개드리고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지난 경기문화재단 또 경기도가 진행해왔던 생활문화 플랫폼 지난 여정에 대한 의미들, 현장에서 갖고 있는 생각들, 재단의 생각들을 들어봤고요. 또 심한기, 임승관 두 분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어떤 고민들을 해야 하는가?’, ‘의미에 머무르지 말자!’라는 이야기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연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사업이 이미 구체화되고 있고, 오늘 개막식에서 우리 조미자 의원님, 문화예술 본부장님 두 분께서 내년에 경기도의 생활문화사업이 증액됐다는 즐거운 소식도 전해주셨던 만큼 이 계획들이 ‘어떻게 잘 쓰이느냐?’ 돈의 액수보다 사실은 ‘어떻게 의미 있게 쓰일 것인가?’를 가능해보고, 생각을 더해보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얘기해주실 분이 [경기문화재단]의 생활문화팀장으로 계시는 최진호 팀장님. 그리고 [고양문화재단]의 박성혁 생활예술팀장님. 또 현장에 또 질문을 해봐야겠죠? 박미숙 [문화기획협동조합 별책부록] 이사님, [공간 옴팡지기] 천성원 선생님 이렇게 또 물어봐주시고 이것에 대한 의미로 강원재 대표님, 최혜자 대표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해주실 분은 경기문화재단의 최진호 팀장님이십니다. 사실은 이 경기도 사업이 재단 단독으로 하지 않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민간의 전문가들, 또 현장 의견을 보태서 추진단 이런 이름이긴 합니다만 함께 생각을 보태서 만들고 있는데 내년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우리 팀장님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A4 한 장 분량의 질문을 보내주시기도 했었고요. 아직 제가 답을 못 드렸는데 여러 고민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아마 가안 정도를 이야기 하고 생각을 보태 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최진호 팀장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최진호 | 네, 안녕하세요.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 최진호입니다. 2023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제가 느꼈던 지난 6년간의 성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16년부터 21년까지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예술과 동호회를 넘어서서 일상에서의 자발적인 활동지원을 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고, 생활문화기획자나 디자이너 양성 그리고 공간지원을 통해서 지역의 자발적 생활문화 확대를 위해 힘을 많이 쏟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경기도의 기초문화재단이 22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광역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공고히 하려고 했고요. 그 2년간의 사업을 통해서 지역별 생활문화의 출발선과 환경, 그리고 현안의 다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위해서는 기초문화재단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 독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확 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23년의 경기문화재단 사업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2년에 확산 및 연계사업이라는 명칭을 썼었는데, 이걸 좀 약간 의미가 많이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서, 예전에 저희가 브랜딩 했던 사업명을 다시 살려서 '경기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고, 이것들을 기초문화재단과 함께 할 때에는 기초문화재단이 만약 '고양'이라 한다면 '고양 생활문화 플랫폼' 이런 식으로 사업명을 같이 써주시는 것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22개 시군 기초문화재단에게 23년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회신을 요청 드렸는데 요청 중에 가장 큰 건 세 가지입니다. 우선은 경기문화재단에 2에서 3정도의 예산과 기초 1정도의 매칭을 요청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속성확보를 위해서 3년간 사업예산에 편성을 같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 광역문화재단뿐만 아니라 기초문화재단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되지 않는 한은 기존의 전체예산에 다른 사업을 줄여야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조금 도와드리기 광역의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시군청이나 의회를 설득해나가면서 생활문화예산을 늘려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사업은 옆에 보시는 도표와 같이 22년 진행한 방식처럼 기초문화재단이 3개 이상의 생활문화단체를 연계해서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출발선이나 현안이 다르기 때문에 컨설팅을 통해 사업구성을 조정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초문화재단이 없는 지역에 대한 것인데요. 보통 지금 시군 9개입니다. 또한 저희가 앞서 회신요청을 드렸을 때 약 8개 지역에서 관심을 보여 왔고, 대략 23년에는 10개 지역 내외 정도가 저희랑 협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문화재단이 없는 시군 9개와 협력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예전에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처럼 직접공모를 지원할 예정이요. 또한 생활문화 기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김포라던가 평택, 포천, 구리, 안양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직접공모를 진행할지 여부를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확산 및 연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가 생활문화 협의체 운영과 정담회 그리고 지금의 토론회를 진행한 것처럼,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해서 광역과 기초 그리고 생활문화단체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를 계속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활문화 인적자원인데요. 저희가 생활문화 담당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하고 '생활문화활동 주체발굴'을 위한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까 1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찾은 인사발령으로 인해 사업담당자들의 생활문화 이해도 향상이 필요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 워크숍을 1박2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게 정담회에서도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요청도 있어서, 23년에도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생활문화가 이제 궁금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대상의 '똑똑학교' 그리고 도내 생활문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활짝학교' 운영을 통해서 지역에서 활동할 생활문화인력 양성에도 힘을 더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개막식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이 어제 밤에 막 통과가 되어 여기에 적지는 않았는데, 기획하고 있는 소규모 민간 공간에 대한 지원사업도 시범사업으로 조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23년 생활문화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고 저희가 22년 사업을 하면서 약간의 고민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광역문화재단에서 하던 것을 기초문화재단한테 이제 인계를 하면서 기초문화재단과 생활문화단체 간에 갈등이라던가, 기존에 참여하셨던 플랫폼단체와 신규 발굴한 단체 간의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의 고민이 있었고... 이런 것은 지금도 자리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요 근래 광명문화재단을 다녀오면서 약간의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방법이랄까? 저희가 생각이 조금 좋아지게 된 계기가 있긴 한데... 그런 것들도 같이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석 | 네. 고맙습니다. 뭐 들으셨겠지만 물론 이 안에 더 세부적인 고민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의 아웃라인이고 이것이 정립되어 정말 경기도 생활문화의 현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이나 참여 또는 뭐 비판도 좋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생활문화라고 하는 단어가 정책의 언어로 등장하면서 많은 고민들은 '생활문화를 어떻게 정의하지?'에 꽂혀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이 지난 6년여의 시간 동안에 그것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 조직적 정의를 해내느냐 보다는 그 의미들을 담을 그릇을 어떻게 우리방식으로 만들 것인가로 다른 접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이 담긴 아웃라인을 갖고 우리가 구체화하는데 함께 힘을 보태보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기초로 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참여를 하셨는데 고양문화재단의 박성혁 팀장님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8

박성혁 | 네. 안녕하세요. 고양문화재단 생활예술팀장 박성혁입니다. 저희가 발제에 대한 제안을 받고, 사실은 고양문화재단에서 내년에 경기생활문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갖고 가실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사했는데 저희가 애당초 한 두 달 전에 갖고 있던 계획과 너무 많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조금 주제를 바꿔서 그럼 저희가 경기생활문화협력사업과 같이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만 조금 좁혀서 진행할까 합니다. 현재 저희 고양은 시의회가 아직 예산심의도 열리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전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서 생활문화에 관련된 것들이 작년보다 예산이 한 70%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문화재단하고 협력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22년도 저희 생활예술팀이 생기면서 전략목표로 삼아 만들었던 건데요. 저희 고양시는 재단이 생긴지 17년이 되었고, 특례시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정책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 재단에 생활예술팀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고양시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3년 정도 흘렀고, 아직은 저희가 초기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문화재단의 4대 전략에 생활문화가 들어갔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그동안의 10여 년 동안 없었던 상황이라 생각해서 큰 의미를 가지고, 하나씩 진행하려 고민을 하고, 진행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경기문화재단하고 저희가 협력했던 사업만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저희 고양시는 사실 생활문화 기획자분들이나 활동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활동하셨고, 재단과는 연결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경기문화재단과 사업을 하며 시작했던 게 그분들을 좀 찾아보는 작업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디서 뭘 하고 지내시는지, 그다음에 그동안 개별적으로 한두 번 얼굴 본 분들을 열 분 열한 분 정도를 모아 만나서 저희가 담론을 형성하는 작업을 1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번의 회의도 했었고, 그다음에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를 했던 결과를 책으로 정리한 것도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한 번도 생활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지 않았기에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일단은 담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 단계가 이 이야기들을 펼쳐야 되는 상황인데 펼쳐는 작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내년에는 이 펼쳐는 작업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툰니바퀴 모양의 도표를 설명하며) 밑에 보시면 기획자워킹그룹이라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만났던 분들을 워킹그룹이라고 이름을 그냥 짠 거예요. 그래서 진행했던 부분들은 계속 돌아가고, 그동안 담론을 형성한 것들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두 번째로 굴러가고, 저희가 3년 동안 생활문화 기획자 양성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좀 거창하긴 하지만 3년을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일반과 청년으로 좀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기획과정만 하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어떻게 이 안으로 끌어들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워킹그룹을 한층으로 이끌어가고, 새롭게 진입하신 생활문화에 관심 있고, 기획자가 되어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을 한 그룹으로 형성해서 이 두 그룹으로 내년에는 같이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제로 오랫동안 고민하셨던 선생님들과 함께 하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안이고요.

두 번째는 (원형 모양의 도표를 설명하며) 저희 고양 지역에 공간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사실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도 저희가 2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 사업들과의 개별적인 사업만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과 같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협력 사업을 재단에서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네트워크는 사실 형성되어있는 상태이기에 저희는 이 민간단체 중에 공간들을 갖고 있는 분들과고 어떠한

고민과 협력을 통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고양시의 생활문화에 대해 발전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진행해보려 생각합니다. 저희는 내년엔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만, 이 두 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 진행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내실을 다지는 시간으로 진행해보려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8

권순석 | 네, 고맙습니다. 빨리 예산이 확정되시길... 기대합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광역재단의 입장을 예기해주실 때 살짝 언급해주셨는데... 내년부터 다시 생활문화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정식으로 쓰기로 했는데, 사실 이 사업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기초로 넘어가는데 원칙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간에 여러분들이 경험해 오셨던 것들에 우리가 의미들을 부여하고, 그 의미를 기초에서는 사실 출발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고 고민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 사업의 의미들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 방향에 대한, 그리고 가치에 대한 의미에 대한 것들은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고양도 그런 큰 틀 안에서 지역적 고민을 함께 하고 계신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들어봤고요. 현장에서 또 궁금한 지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혹은 생각을 좀 더 넓혀 달라는 요청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문화기획협동조합 별책부록 박미숙 이사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

박미숙 | 안녕하세요. 문화기획협동조합 별책부록 박미숙입니다. 네, 이 별책부록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경기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 덕분에 저희가 이 조합을 딱 시작하자마자 이 사업을 하게 됐고, 생활문화가 뭔지도 잘 모를 때 한 땀 한 땀 배워가면서 성장한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은 '별책부록을 만든 곳이다', '만든 거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실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질문을 하는 입장이 돼서 재단과 기관에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요. '생활문화현장이라는 데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생활문화 플랫폼 같은

경우 지원 사업을 받은 곳들, 지원 사업을 받아서 어쨌거나 컨설턴트와 연계를 맺은 재단과 연계를 맺은 곳들을 생활문화현장이라 부르는데 그러면 생활문화현장은 여기뿐일까에 대한 거죠.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시작한 요즘이거든요. 제가 사실은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도 생활문화활동을 해요. 도서관은 생활문화활동에 굉장히 주요한 공간이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시나 도에 생활문화하고 정책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걸 많이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지원 외에 정책방향제시와 공유 같은 것들이 재단에서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중요하게 고민이 되고요.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다양한 현장의 내용들이 공유되고 확산되는 계기가 필요한데, 이 역시도 플랫폼사업에 참여했던 그룹 혹은 재단하고 연결되어있는 그룹만이 참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모사업 외에 재단이 생활문화 현장을 어떻게 발굴하거나 혹은 지원하거나, 쉽게 얘기하면 떨어진 곳들은 혹은 공모에 임하지 않은 곳들은 어떻게 그 현장을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제가 앞부분에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현장의 내용이 공유되고 확산되는 계기가 왜 필요하면, 방금 저는 고양시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별책부록은 고양시에 적을 두고 있는데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 생활문화라는 말을 재단이 사용하기 시작한 건 3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생활문화현장들은 존재했고 '다양한 생활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얘기해서 같이 발굴하고, 기획자그룹을 하거나 얘기할 때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눌만한 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플랫폼 사업안에 다 있긴 하지만, 플랫폼 사업에서 떨어져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거나 할 때, 기초작업을 할 때, 이야기할만한 자료도 없고, 그런 것들이 되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단이 '정책적인 지원, 혹은 구체적인 지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그런 적절한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요청 드리고 싶고,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런 포럼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로 방송이 되지만, 역시 일부 사람들만 보고 있는데 제가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가장 반가웠던 건 자료집이 미리 나오지 않고, 사후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되게 좋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유하고 확산해서 지역 안에서는 어떻게 논의하고 어

떻게 얘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재단이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8

권순석 | 네. 고맙습니다. 단순히 사업 설계 이전에 사실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문제를 정의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본적인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현장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그 현장은 어떻게 확대되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그간에 겪어왔던 과정과 의미들, 수많은 데이터들은 어디에 축적되고 누가 볼 수 있는가?' 등 사실은 당장의 어떤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일들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또 그것은 민간뿐 아니라 공공에서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고, 그것이 사업으로 좀 만들어지고 예산이 같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내년 기획에 반영하면 좋겠다는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간옴팡의 천성원 선생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

천성원 | 네. 이런 자리가 처음이야가지고 마음이 두근두근하는데요. 저희 옴팡은 부천에 있는데 저희가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을 4년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4년 동안 진행했고, 앞의 1부에서 진행했던 임승관 선생님이나 아니면 심한기 선생님이 처음 면접 볼 때 물어본 질문도 생각나고, 임승관 선생님이 저 1년차 때 담당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해주셨던 이야기와 4년 동안의 기억이 스쳐갔는데 갑자기 광역이나 기초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생활문화'라는 게 언어적으로 표현되기보다 풍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의 풍경을 어떻게 서로가 다양하게 만들어 가느냐의 문제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생활문화 플랫폼이란 단어를 경기문화재단에서 처음 접했을 때에 '우리 활동들을 그냥 생활문화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쓰고 제출했을 때, 뭐 처음이니까 서류 면접이라도 볼 수 있으면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가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런 게 생활문화라고 하셔서 '아 우리 활동을 생활문화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봤고. 어떤 공공기관에서는 저희들의 활동을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아! 이게 또 평생학습인가 보구나!'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들이 물론 행정이라든지 정책과 제도에서는 분명 필요한 개념들이겠지만, 현장은 좀 다양한 풍경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걸 누가 뭐라고 부를까는 행정의 언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점에서 아까 500억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 저는 그러면 '경기문화재단에 이 사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평생 직장이 될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담당자분들이 계속 또 바뀌어 가지 않아요? 부천은 뭐 어쨌든 생활문화라는 단어가 예전부터 있었고, 동아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락축제라든지 이런 게 지역에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생활문화팀에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놓고 워크숍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워크숍을 하면서 내년에는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뭔가를 할 거라는 얘기를 담당자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올 초에 다 인사 발령 났습니다. 부천은 또 문화도시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예산들이 문화도시 사업 쪽에서 연결되고, 그걸 중심으로 모든 사업들을 꾸러가기 때문에 이제 '문화도시와 생활문화는 뭐가 또 다르지?' 하여튼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부천에서 했던 결과가 올 초에 만났던 담당 팀장은 다른 쪽으로 인사발령이 났고, 인사발령 난 근거는 분명하겠죠? '몇 년 동안 했으니까, 또 딴 데로 가세요.' 이랬을 거고 그러다보니 작년에 세웠던 계획들이 많이 축소되었다고 하고, 또 거기서 그거를 관심 있게 일했던 직원 분은 또 그만두고 수원의 문화재단인가? 또 어디로 가셨다 그러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한번 짚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른 이야기들은 다 많이들 얘기하셨기에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60대 장년들이 참여하는 '춤추는 수다방'이라는 프로그램을 교육이란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게 다 끝나고 참여자들이 공연을 했어요. 짜여진 어떤 몸짓을 갖고 공연을 한 건 아니고, 각각 개인이 그날 어떤 노래를 틀고 춤을 출건가는 결정을 했지만 어떤 행동과 동작을 할 건지는 정해진 패턴이 없이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 단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공연을 하셨는데 그게 끝난 다음에 공연하셨던 분이 저녁 한 10시쯤에 저희 단톡방에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자기는 합창단 활동도 하기 때문에 많은 공연을 해보지만 공연을 할 때 남한테 잘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굉장히 갈등을 겪기도 했는데 '이번 공연은 자기를 위한 공연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되게 유쾌했다는 문자를 공유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생활문화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닐까? 비교 당한다던지,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각각의 다양한 신체를 갖는 사람들이 다양한 감각으로 비정형화된 틀 속에서 뭔가를 해보는 것들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산 속에 이걸 어떻게 녹여야 될 건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행정을 담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헌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요즘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제도 젊은 청년들과 집들이로 술 한 잔 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한 친구가 4인 가족이 월세로 살며 대출로 빚을 갚는데 한 달 이자가 130만원 막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돈을 어떻게 만들까?' 네 명 중에 경제활동과 임금노동을 하는 사람은 두 명밖에 없고, 두 명은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잠깐 다른 분이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공공임대주택이라 하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하나의 행정적 사업이죠. 임대주택에 누군가는 당첨이 돼서 그 경쟁에서 승리하고 어느 정도 공간을 얻는 건데, 오스트리아에선 공공임대주택의 주체가 정부와 지자체가 아니라하더라고요.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한 30년 전부터 계속 뭔가 자기의 계획들을 세워나가고, 합의해나가고, 정부에 요구하고, 건설회사에 요구하고. 또 그들이 민간의 이름으로 행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본인들의 어떤 필요성을 공공이라 얘기하면서 그렇게 진행해가는 방식이 제가 최근에 들었던 오스트리아의 사례인데 아까 임승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정책과 제도라는 부분들도 결국 주체는 항상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갖고 있고, 민간은 혜택을 받는 대상이라는 발상을 저는 과감히 근본적으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8

권순석 | 네. 고맙습니다. 사실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 모 문화기관에서 내년 신년호 관련해서 좌담회를 했는데, 그날 주제가 '격(格)'이었습니다. '격이 있다' 뭐 '격을 갖춰라' 할 때의 격인데. '격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라는 질문에 대답을 '쫄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적당한 언어 인지는 모르겠는데 '내 멋대로 한다!' 혹은 '내 주장대로 한다!'의 '쫄'입니다. 사회자가 고 모 평론가라고 참 채치 있는 분인데 '그게 격조네요. 격조 있네요!'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누가 정의 내려준 생활문화라는 것에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경기도가, 또 경기도의 여러 생활문화현장이 '우리는 이런 걸 생활문화라 한다!'라고 우리 쫄대로 이야기하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책의 대상으로 혹은 지원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그게 경기도의 생활문화 격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

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분 말씀에 더해주는 이야기들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바쁘신 강원재 선생님, 최혜자 선생님을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아는 강원재 대표님 같은 경우는 현장과 정책 양 측면들을 다 이해하시고 중간에 누군가에게는 못매를 맞는 대상일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완충지대가 될 수도 있는 '문화행정'이라는 역할을 해보심으로 인해서 '생활문화 현장의 이야기'와 그것을 그릇에 담아서 '정책과 사업으로 펼쳐야 되는 재단의 입장'이 지점에서 조연해주시고 생각을 보태주실 수 있지 않을까싶어 모셨고요. 우리 최혜자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오늘 나온 수많은 이야기들을 한번 축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축적이 되어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기록을 해둔 그 당사자 장본인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두 분께 모든 이야기에 대한 더하는 말씀을 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자 선생님 좀 곤혹스러우신 것 같아요? 먼저 강원재 대표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

강원재 |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강원재입니다. 여러 선생님들 말씀을 듣고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실은 다 까먹고, 선생님들 이야기에서부터 이야기를 좀 보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성원 선생님이 누구와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자기가 가진 신체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지는 상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잘 해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생활문화는 '잘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사는 게 뭔지를 이렇게 경험하고, 생각하게 하는 게 생활문화가 아닐까? 그게 '생활'이라는 원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라이프'라는 게 그냥 '삶'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삶을 지속시켜나간다'라는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라이프인데. 우리가 삶을 지속시켜나가는 문화들, 그 문화라는 것은 이제 복수의 개념이잖아요? 혼자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고 사는 건 생활이겠지만, 나의 생활이 누군가와 만나고 어떤 지켜봄과 바라봄의 관계로 이뤄질 때 문화가 되는 것인데, 그럴 때 이제 복수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것인지를 함께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앞에서 경기문화재단의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에 대해 거의 간증 수준으로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내주신 자료와 함께 지켜보니

까, 정담회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계속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서 뭔가 사회 변화를 위한 일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각자가 대화하면서 서로를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관계 안에서 스스로가 변해가고, 누군가에게 내 말이 기다려지고 있다는 환대를 받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치였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 선생님들이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이건 뭐 일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실은 어떻게 보면 내 말을 기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함께 원을 만들고, 그 속에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원을 깨지 않는다는 신뢰를 갖기 때문에 안정감과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담당자를 확 바꾼다는 건, 내 말을 기다리지 않고, 나를 초대해두고 함께 그것을 이야기 하지 않고 바꾸어 나가는 되게 곤란한 상황으로 다들 몰아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공 기관으로서 그런 고민을 또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문화재단이라는 단체들은 생활문화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때 이 문화재단이라는 곳을 우리가 사회적 기제로 볼 것이냐? 좋은 사회적 기제. '이런 재단은 우리가 함께 쓰는 사회적 기제야' 그래서 이 기제를 의원님도 계시고, 재단 관계자 분들, 행정 쪽에서도 있을 것이고, 현장도 있고, 단체 지원받는 단체들도 있을 텐데 '재단은 우리가 함께 쓰는 기제야'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물질로 작동시키는 기제가 아니라 '비(非)물질 기제야', 그리고 거기에서 '담당자도 그 기제를 우리랑 함께 다루는 협력자였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협력자 한 명이 사라졌을 때, 새로운 협력자와 어떻게 그 이전의 일들을 전수하고, 그 이전의 담당자가 했던 일들을 알려주고, 이런 선배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재단을 바라보는 관점을 실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미숙 선생님이 정책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들도 이제는 이런 사업안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실은 그것조차도 위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정책방향도 같이 만드는 거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그 기제를 작동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기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잘못 작동되는 거대! 그래서 그것을 고쳐 써야 되는 것들을 오히려 법과 제도로서 함께 해나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보니까 이 정담회나 거버넌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공론장도 잘 돼 있고, 그래서 경기 생활문화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업이 잘 작동될 수 있는 현재 구조를 좀 가졌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좀 가능성과 희망을 가지고, 모처럼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굉장히 좋은 상

태의 뭔가 시공간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잘 활용해서 지속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8

권순석 | 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나눠지는 이야기들이 휘발되지 않게 하려고, 사후적으로 우리가 자료집을 만들자고 했는데. 단순히 말에 대한 기록만 할 게 아니라, 강원재 선생님의 말씀을 좀 빌리자면 이 생활문화 플랫폼이 '어떤 좋은 작동기제로서 혹은 기계로서 의미를 가지는가를 조금 더 명확히 정리'하고, 그것을 또 '내년부터 함께 하게 될 기초의 관계자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최혜자 선생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8

최혜자 | 네. 일단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 지역문화진흥원에도 '생활문화'라는 용어들이 살짝 사라지고, 그냥 지역문화로 대체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도가 또 경기문화재단이 생활문화를 이렇게 중심에 두고 간다는 것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생활문화를 열심히 하던 분이 도의원이 되니 이런 일도 있고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할 건데, 두 가지를 길게 할 가능성이 있기에 중간에 끊어서도 됩니다. 하나는 생활문화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2014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만들어지고 생활문화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정책의 설계는 '생활문화공동체', '생활문화동아리', '생활문화센터 공간', '문화자원 봉사', '축제' 이렇게 다섯 개의 층위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멀쩡하게 2013년을 살다가 2014년이 딱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일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발견을 하고 뭐 이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보니 아까 1섹션에서 신지은 선생님이 근육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기존에 갖고 있는 근육을 갖고 활용하다보니까 생활문화센터도 약간 주민센터처럼, 생활문화동아리도 옛날에 강고한 규칙을 갖고 있는 동아리처럼, 생활문화공동체도 약간 지역으로 가면 새마을운동 비슷하게 된 측면이 사실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 한 6~7년 동안은 그런 것들을 계속 실험하며, 더 일상의 근육으로, 더 우리의 사소함의 영역으로, 경청과 발견의 영역으로, 계속 이것을 일상으로 끊임없이 끌어당겼던 그런 과정들이 전국적으로 있었습

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생활문화센터 즉 공간사업과 관련되어 전국적으로 최고 우수사례는 서울시에 있는 마을예술창작소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동호회와 관련된 좋은 사례들은 굉장히 많은데 '삼삼오오'라던지, '십만원 프로젝트' 라던지 모임의 형태들이 다양하게 된 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생활문화 공동체 영역과 관련된 사업 중에 저는 전국에서 가장 최고의 사례는 생활문화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컨설턴트도 해매고, 현장도 해매고, '그래도 돼?', '우리가 이렇게 해도 돼?'라며 컨설턴트한테 몇 차례씩 사람들이 반문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뭘 발견하라고 해요?', '정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냐?'라고 하는 저항도 있었지만, 한 3~4년 지나니까 형태와 방식이 만들어지고,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게 너무 소중한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활문화 플랫폼은 오늘날의 새로운 형태의 어떤 생활문화 공동체로서 새롭게 의미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태까지는 이 방식을 만드는데 전념했다면, 지금부터는 좀 확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재단 팀장님이 기초재단과의 협력, 또 재단이 없는 곳에서는 그냥 기초 영역과의 어떤 협력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당연한 과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연락처해야 된다, 서두르지 말자, 기초재단이 그렇게 정책에 전달체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절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연착륙해야 된다', '천천히 하자!'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보통 라도삼 박사가 잘 하는 얘긴데요. 정책이 한번 만들어지면 첫째 연도에는 연구자가 알고 있고, 둘째 연도에는 행정이 알고, 셋째 연도에는 현장이 안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역으로 연결해서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시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장이 너무 힘들어진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내용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생활문화 플랫폼이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을 기초로 해서 내가 재밌게 하고 싶은 거를 하니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야라는데 그럼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게 이것의 효과라고 한다면 이것을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정책은 이 설명만 하면 못 알아들어요.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끝내 200년이 가도 못 알아들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전 개인적으로 한 달, 두 달 제가 고민하는 게 '외로움'이라는 거

거든요? 뭐냐 하면 2018년도에 영국에서 '외로움부 장관'이 만들어졌을 때 외로움에 장관이 있다고? 내각을 구성했다고? 영국에서? 너무 웃기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임명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작년에 일본에서 고립 고독 담당장 장관이 만들어졌어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예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영역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데, 이 외로움을 개인적인 외로움이 아닌, 사회적 질병 현대 질병으로 규정하는 건데,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공성이라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오늘의 현실에 맞게 포커싱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립이라는 문제를 연구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 하나면, 현대 사회에서 외로움은 현대사회의 질병 중에 자기의 개인적인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게 외로움이라 한다면, 이게 사회적인 영역에서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게 바로 혐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공동체의 최고의 고민이 이거 아닌가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경기 생활문화 플랫폼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정책도 이해하고, 사회적 가치도 있고. 이걸 산술적으로 해서 영국에서는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가적으로는 얼마의 손실이 있고를 다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계산하는 거 좋아하는 나라니까. 제가 길게 하죠? 끊어도 되요. 알람까지 해놨는데 시간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로움과 혐오라는 문제를 공동체와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야기하면서, 생활문화 플랫폼에서 외로움과 혐오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서 집중하고 들어가면 결국 공동체 문제와 다양성 문제에 다 딱딱드러지는 거 아닌가 싶고, 정책의 용어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의사가 외롭다는 사람을 처방한다며 이 사람한테 약도 주지만, 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 처방전을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합창단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시각 미술교실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이것을 사회적 처방으로 내리는 법까지 내년까지 완성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되어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활문화라는 것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정부에서 아직 관심 갖고 있진 않지만, 이번에 찾아보니까 광역 중에서도 네 군데가 외로움과 관련된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 중에도 14군데가 외로움과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실제로 상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생활문화 관련된 내용으로서, 조금 더 공공적으로 이런 걸 끌어내는 것이 이후에 2~3년 지나면 경기도에서 실험했던 이

생활문화 플랫폼이 모델이 되어 전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감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생활문화 플랫폼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었던 기회가 저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행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8

권순석 | 네. 고맙습니다. 시간 많이 오버안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저희만 이야기하다 시간이 조금 초과되었습니다. 조금 딜레이 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인 만큼 몇 분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봤으면 합니다. 아까 제가 예고 드렸던 대로 플로어에 마이크가 준비될까요? 그러면 뒤에 돌아보고 계신 이초영 선생님! 올해 우리 현장과 만나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시느라 정말 감사합니다.

8

이초영 | 오늘 경기생활문화 교류 및 확산 연계사업에서 광명문화재단과 함께 조연자로 참여한 이초영입니다. 오늘 1~2부 정말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이야기와 이슈들이었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광명문화재단, 특히 기초문화재단이 이번에 어떻게 함께 협력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군데의 단체가 먼저 찾아오셨고, 함께 교류하거나, 네트워크를 갖고 싶다고 먼저 광명문화재단에 제안을 하셨는데요. 그 네 군데 모두 다 각자의 공간의 정체성이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했기 때문에 서로 지역사회 안에서 인사 정도는 했지만, 이번 기회에 서로 교류를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서 지역 안에서의 주민을 만나는 프로그램을 하셨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전 광명문화재단이 그 분들을 많이 기다려주신 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도 현재 100개의 만주를 만드셔가지고 저쪽에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생활문화를 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시겠다는 컨셉으로 나와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오늘의 그런 기획들, 그리고 이전에 했던 여러 자리들의 기획들을 모두 다 그분들 스스로 하셨습니다. 사실 재단이나 아니면 제가 함께 개입해서 기획하고 빨리빨리 순서정리를 하면 이야기가 금방 끝났을 수 있었지만 그분들이 하나하나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게 좋을지, 어떤 것을 함께하는 게 좋을지를 기다려줬고, 광명문화재단도 그것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재단 직원께서 한번 저한테 허심탄회하게 물어보셨어요. 재단이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함께 할 수 있을지 담당으로서 고민이라고 얘기해주셨는데. 첫 번째

는 함께하시는 분들을 '지지해 주셔야 한다!'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재단으로서의 입장을 고수하지 말고 함께 고민하는 형태로 얘기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재단 안에서의 생활문화비전과 정책방향을 같이 고민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슈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단 안에서의 생활문화의 포지션이 어디인지에 관련된 고민이 필요하기에, 그것이 일단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인상 깊었던 하나는, 행정에서 진행하는 그 여러 가지 현장까지의 간극을 다 메꿔주셨어요. PPT같은 거 하나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안에서 누가 만들어야 되지?' 약간 망설여지는 것들. 아니면 뭘 하나 디자인해야 하는데 '누가 디자인해야 되지?' 망설여지는 것들을 재단에서 많이 감내 해주시고, 함께 도와주셔가지고, 그 부분들이 전부 해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현재 기초문화재단과의 만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앞으로 문화자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에 이 재단과의 태도와 그리고 또 재단 안에서의 직원들이 선의로써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8

권순석 |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제 의도대로 됐고, 나중에 사실 오늘 우리가... (웃음) 제가 너무 실없는 소리를 했나요? (웃음) 마지막에 우리 끝까지 토론 같이 해주고 계시는 재단의 본부장님, 도의회의 조미자 의원님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관심 있어서 이 자리까지 와주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 것 같아요. 의견도 좋고요. 궁금한 것도 좋고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치게임 하지 마시고... 어느 분이요? 가만 마이크에 하얀 티셔츠요? 네 그럼 드리지요. 뭐. (웃음)

8

김민정 |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참좋은수다의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아까 신지는 선생님 말씀처럼 저도 '대표' 이런 말 너무 부담스럽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좋았고, 저희가 생활문화 플랫폼의 매년 오늘이 너무 좋아요. 매년 오면 18개, 막 30개 이내의 단체들이 자기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1년이 좀 외롭거든

요. 우리 선생님들을 계속 푸쉬하고, 하자하고, 이렇게 하는 1년이 너무 힘들다가 18개 단체들을 짝 계시면 '이거 봐! 우리만 이런 게 아니잖아! 같이 가고 있잖아! 우리도 그냥 같이 엮어서 가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 선생님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오시기만 하셔라!'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의 코로나 2년 동안 해결한 부분이 단절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너무 공감이 되었는데, 저는 사실 '이게 뭘까? 나 이거 맞나?' 하는 고민이 너무 많았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 느꼈던 것이 저희는 외롭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이 없었으면 굉장히 고립감이 많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에게 단절을 해결하는 방법과 우리만의 스킬이 늘어나고 있고, 방향성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도시를 만드는 시민의 철학들이, 우리 것이 생기는 것 같고. 저는 딱 그 정도라 생각합니다. 생활문화 플랫폼의 어떤 큰 영역의 방향성은 모르겠지만, 우리 공동체들이 이 마을을 살아가는 우리만의 철학을 만들어가는 단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정말 기쁘고 우리 멤버들에게 매번 감사하고 멘토 해주신 생활문화플랫폼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8

권순석 | 네. 마이크 안 드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옆에 같이 오신 분들이 너무나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서 제가 사진 찍어줬으니까 이따가 사진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받기로는 평택에서도 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어디 계실까요? 아, 저 뒤에 계시네! 제일 끝에 계신데, 멀리서 이거 들으려 또 오신 거잖아요? 멀지 않은가? 마이크 한번 드러보죠. 평택은 어떤 고민,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아까 말씀드린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8

김희영 | 저는 평택시문화재단 생활문화팀 김희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사실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됐는데, 그래서 말씀하시는 5~6년 동안의 플랫폼사업에 대해 완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저희 재단이 20년도에 만들어지고, 사업들을 진행하며 기반을 다지는데 있어서 좋은 의견들과 그동안의 노하우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 위해서 참석하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뤄나가야되

는 사업, 그리고 지금 플랫폼이 광역에서 기초로 넘어왔을 때 기초에서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재단에서 생활문화를 늘려가고 많이 지지해주고 계시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조금 더 평택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하는데 도움이 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해주신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저희가 가야 되는 방향을 조금 잡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8

권순석 |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끝 말씀 듣고 정리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마이크 잡아주실까요? 본부장님 먼저? 네.

8

주홍미 | 네.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주홍미입니다. 1~2부 말씀 다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 짧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팩트를 정정할게 있어서 그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천성원 선생님께 500억 증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전체 경기도 예산은 2023년에 33조로 결정이 되었고, 그중에 문화체육국 예산이 5,079억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의원들이 많은 협력과 소통과 투쟁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5,079억에서 400억 정도를 더 증액을 하면서 전체 문화예술의 포선이 조금 더 상향이 되었고, 근데 그 증액된 430억 예산안에는 전체 경기도의 8개의 공공기관, 문화 예술 체육 관련해서 8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콘텐츠 진흥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뭐 기타 등등이 있죠. 그 8개의 기관 전체를 합해서 증액이 된 거고, 그중에 경기문화재단이 43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43억 중에서도 생활문화 증액은 한 10억 정도입니다. 그래도 그거는 저희로서는 너무 소중한 큰 성과이자 쾌거이고, 그것을 우리가 기초재단과 민간현장과 함께 잘 사용할 수 있게 더 좋은 정책과 행정을 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다 서로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짧게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최혜자 선생님이 '기다려줘라, 기다려야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근육'을 말씀하셨고,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해야 되는 우리 재단입장에서는 중간에서 성과를 내야 되고, 성과가 있어야 그 다음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일정부분은 그 부분으로 가야되는 부분

이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서 잘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신과 그걸 가지고 기다려도 성과가 날 수 있는 평가 방식과 정책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고민을 하는 2023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권순석 | 네.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천성원 선생님의 기대치였던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500억 정도는 언젠가 생활문화예산으로 올곧게 쓸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기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조미자 의원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겠습니다.

8

조미자 | 항상 이런 자리에 오면 저는 절대 이 자리에 안 있었습니디. 현장을 누비고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이제 직업이 바뀌고, 정확히 제가 방향을 알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에 정말 생리적인 현상까지 참고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제가 와서 이런 현장을 해석해주고, 조금이라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참 잘했다! 이런 마음이 스스로에게 들었어요. 열심히 남은 3년 하고도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고, 조금 더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생활문화나 이런 쪽에 더 소통하면서 했으면 하는 맥락이 있는데, 저는 저의 문제의 해결이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지역 속에 있지만, 다시 마을로 돌아갈 것이기에 제 문제의 해결이예요. 생활체육도 그렇고, 이런 맥락에서 함께 하시는 거고. 제가 그래서 방향을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부족한 글이지만 요번에 중부일보에서 칼럼 제안이 와서 생활문화 정책의 중요성을 썼고

그리고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대한민국 최초로 문화자치조례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인데 가서 보니까 문화자치조례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셨는데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적으셔서 이 부분을 끄집어냈고, 이 부분의 예산도 다시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제 역할이 좀 있었구나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친밀하게 제일 걱정되는 것은 생활문화가 사업화될까봐 이게 제일 걱정이고, 뭐를 평가할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흔히 입에 달고 있는 정성적 평가의 가장 대표사업이거든요. ‘몇 명 참가했어?’, ‘다섯 명이 모여서, 수다 떨고 캘리그래피했어’ 이러면 ‘이게 뭐야!’ 이렇게 잘라버리면 안되잖아요. 그 마중물 이 지역을 바꾸는데 저는 그걸 경험했고, 그거를 신뢰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이 부분을 저는 여기 계신 현장선생님들, 또 재단 전문가 분들하고, 정책안

에서 부족하지만 계속 소통하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열심히 저도 공부하면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항상 올 수 있으면 이 생활문화 축제에 와서 저도 성장해야지 또 정책도 낼 테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같이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그 역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사랑합니다.

8

권순석 | 네. 고맙습니다. 사실 뭐 포럼 자리에 개인적 인연을 얘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조미자 의원님이란 명칭보다 저한테는 현장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이자, 선배이자, 이런 관계로 아직은 형님으로... 저희끼리는 형님이라 했는데 그게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당부는 현장으로 언젠가 돌아오실 텐데, 현장에서 늘 웃고 계셨잖아요? 지금 하시는 일 하시면서 지치거나, 웃지 못 할 일 생겨도 계속 ‘그게 조미자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을 어찌 보면 이름을 만들어서 제안했던 사람입장에서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인데, 사실은 뭔가를 해야 된다는데 저도 답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 5~6년간 답을 만들어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포럼 이전에 수차례의 간담회, 정담회가 있었는데요. 오늘 아마 못 오신 것 같은데 모 재단의 만삭으로 계속 참여하고 이야기해주셨던 분도 계셨고, 어느 실무자는 이야기 중에 감정이 북받쳐서 펄펄 우셨던 분도 있어요. 그분들 생각이 좀 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고. 오늘의 키워드를 한 단어로 뽑으라한다면 ‘근육’을 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다 우리 근육 키워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업총괄 : 문화예술본부장 주홍미

사업운영 : 생활문화팀장 최진호

사업진행 : 생활문화팀 김소정, 전수연

사업협력 : 추진단 권순석, 민병은, 심한기, 김혜미, 권명은
컨설턴트 권순석, 민병은, 심한기, 임승관, 이초영

디 자 인 : 이수현

발 행 처 : 경기문화재단

발 행 일 : 2022.12.30

본 자료는 친환경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하며,
본 자료의 글과 사진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재단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